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영 주

#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연구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영 주

# 인 준 서

이영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에게 참된 성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책임감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같은 목적하에 고문헌,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등에 대한 고찰을 시행하여 불교에서 바라보는 성년례의 의미, 불교의 수계식 과정, 해외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성년례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대에 따른 성년례 변천, 성년례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년례의 개선 방향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교육이나 상담에 종사해 온 불교계 전문가 3명과 학계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성년례의 필요성, 성년대상자 사전교육, 성년례 프로그램의 형식 구성, 부모 대상 교육,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전 녹취에 대한 연구동의서를 받고 응답 내용을 녹취한 후 추후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모든 전사 자료는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거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이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대학이나 사회에 발을 내딛는 20대 청년들 30명으로 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주관자는 사찰의 주지스님과 청년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찰에서의 ‘성찰교육’과 선원에서의 ‘성년수계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성찰교육에서는 성년대상자가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성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발원문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한편 성년자들이 성찰교육에 들어간 날부터 성년수계식이 있는 날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3일간 총 15시간의 교육을 선원의 스님과 의례 및 복식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에 자녀가 의례 때 착용할 배자를 부모가 직접 만들면서 자녀의 신체적 성장을 인지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심리적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성년수계식은 불교에서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수계식에 성인으로 거듭나는 성년례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수계를 고하는 의식인 거향찬으로 시작하여 성년대상자가 삼보와 부모님께 절을 올리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인레자인 주지스님이 오계의 공덕과 의미를 일러준 후 계율마다 지킬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 이를 맹세하는 성년대상자는 대답을 하고 연비를 받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옷의 의식에서 부모가 준비한 배자를 성년대상자에게 입혀주어 성년으로 변화됨을 상징하도록 하였고, 부모가 주도(酒道)를 가르치는 술의 의식이 이행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한 사람씩 성년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쓴 발원문을 낭독하면 수계첩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례자가 성년선언과 축사를 한 후에 성년대상자들이 절을 올리고 예식을 마치도록 하였다.

앞으로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선원이 주관하여 성년대상자의 내면적 성숙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청년세대의 공감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들이 공동기획자로 참여하는 역할 부여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여러 문화단체와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사찰이나 선원과의 협업으로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4
3. 용어의 정의 .....	6
II. 불교의 수계식과 성년례 .....	7
1. 불교에서의 성년례 의미 .....	7
2. 불교의 수계식 과정 .....	8
3. 해외의 사례를 통해 본 불교의 성년례 .....	11
III. 우리나라 성년례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 .....	19
1. 시대에 따른 성년례의 변천 .....	19
2. 성년례의 시행 현황 및 문제점 .....	33
3. 성년례의 개선 방향 및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	39
IV.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	44
1.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구성의 토대 .....	44
2.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구성안 .....	67
3.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75
V. 결론 및 제언 .....	7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목차

<표 I-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
<표 III-1> 전통 관례와 현대 성년례의 절차 비교 .....	34
<표 IV-1> 성년례 프로그램의 기본 형식 구성에 대한 견해 .....	53
<표 IV-2>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개관 .....	68
<표 IV-3> 성찰교육 프로그램 .....	71
<표 IV-4> 성년수계식 프로그램 .....	74

## 그림 목차

<그림 III-1> 건전가정의례준칙 성년례 시행령 .....	30
<그림 III-2> 건전가정의례준칙 성년례의 식순 .....	31
<그림 III-3>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성년선서 .....	32
<그림 III-4>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성년선언 .....	32
<그림 IV-1> 법당에서의 108배 .....	58
<그림 IV-2> 사찰의 사물(四物) .....	59
<그림 IV-3> 스님과의 차담(茶談) .....	62
<그림 IV-4> 사찰의 울력 .....	63
<그림 IV-5> 발우공양 .....	64
<그림 IV-6> 종이 연꽃 제작 .....	71
<그림 IV-7> 성년대상자를 위한 배자 .....	7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는 예로부터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로 여겨지는 시기를 지날 때마다 특정한 의례나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변화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사회에서는 통과의례의 사례(四禮) 즉 관·혼·상·제의 의례를 꼽았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치르게 되는 관례를 출발점으로 보았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아동기와 청년기를 구분하는 통과의례의 의미로 관례와 계례가 이행된 것이다. 관례는 성년의 나이에 이른 남자에게 상투를 틀고 관을 씌워주는 의식을 말하고, 계례는 여자에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 성년의 나이에 이른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책임의식이 확실해야 했고 도덕적 행동도 뒤따라야 했다.

『소학』에서는 ‘스무 살이 되면 관례(冠禮)를 하고 비로소 예(禮)를 배운다.’<sup>1)</sup>고 했고, 『예기』에서는 ‘관례(冠禮)는 예(禮)의 시작이 된다.’<sup>2)</sup>고 했다. 이로 보면 관례는 예를 갖추는 시작으로 이를 행한 뒤에야 참다운 성인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의 관례와 계례는 오늘날 성년례로 지칭이 된다. 매년 5월 셋째 주간에 성년례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년이 되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퍼포먼스로만 인식이 될

---

1) 이기석 역해, 소학, 홍신문화사, 1982, p.17.

2) 최성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

뿐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공인하고,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의 성년대상자들은 이성의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거나, 친구들과끼리 지나치게 술을 마시며 즐기는 등 고유의 성년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분별한 의식이 또래의 문화로 행해지고 있다.

사람은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인성이 달라지므로 결국 그의 인간성을 좌우하는 것은 그가 취득한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성년다움의 인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 교육을 통해 형성이 된다. 이에 성년례는 생물학적 탄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제2의 문화적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sup>4)</sup> 계기로 자신의 삶과 역할을 생각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의식도 확장하게 되어야 한다.<sup>5)</sup>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결정에 따르는 삶을 살던 청소년이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자립해 살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크게 겪게 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로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해한다. 이러한 시기에 성년례를 통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일깨우게 된다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성년례는 단순히 지나가는 행사의 의미가 아닌, 오늘의 성년대상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가치의 의미가 담겨야 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적인 인간이 되는 시점에 종교가 시작된다.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존재성과 그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고 지금

---

3) 고영복, 문화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1997, p.17.

4) 김정신·조희진, 집단성년례의 바람직한 모형, 경원전문대학논문집 21, 1999, p.408.

5) 홍석기, 청소년기 시민의식의 변화와 학생주도 학습경험의 시간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p.78.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점검해주는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다.<sup>6)</sup> 또한 종교는 정신세계의 성숙과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가르친다. 성년이 되는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종교의 수행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구분하고 조율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성년이 될 대상자에게는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므로 자신의 신념이나 진로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를 가져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SNS를 통해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로 떠오르며 그들만의 문화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성세대가 이들의 복장과 언어를 단순히 버릇이 없다고, 학생답지 못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거를 고집하며 답습하는 의례는 이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 의식이 될 것이므로, 21세기 사회를 주도해 나갈 청년세대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성년례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성년대상자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성년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년례를 준비하는 사전교육에서부터 성년식 이행까지를 주안으로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에게 참된 성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아 성찰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년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6) 이승원,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 진리논단 13, 2005, p.272.

## 2. 연구의 방법

### 1) 문헌고찰

본 논문에서는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탐색적 문헌 고찰을 이행하였다. 즉 불교의 수계식과 일생의례에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 자료를 토대로 불교에서 보는 성년례의 의미, 불교의 수계식 과정, 그리고 사찰에서 성년례를 시행하는 해외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성년례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통사회의 관·계례에 관한 고문헌을 비롯해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등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관례와 계례의 준비와 절차가 상세히 기록된 『증보사례편람』<sup>7)</sup>을 토대로 조선 시대 관·계례의 내용 등을 고찰하여 성년례의 의의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년례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존 성년례의 개선 방향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2) 면접조사

본 연구에서는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교육이나 상담에 종사해 온 불교계 전문가 3명과 학계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의 불교계 전문가들(면접대상자 1,2,3)은 불교단체에서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일반 재가자들의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며 불교 교리를 통한 마음공부와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사찰 내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

7)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은 도암 이재(李緯, 1680~1746)가 저술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1900년에 황필수(黃泌秀)와 지송욱(池松旭) 등이 보정을 더해 발간한 문헌이다.

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반면 학계 전문가들(면접대상자 4,5,6)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인성과 의례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성년례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표 1-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면접대상자	성별	연령	직업	종교	학력	면접날짜
불교계 전문가	1	여	승남27	H선원 청소년부 교육 스님	불교	-	10월 21일
	2	여	승남23	H선원 청년부 교육 스님	불교	-	10월 25일
	3	여	56세	불교인재원 교육 분과 교수	불교	박사	10월 26일
학 계 전문가	4	여	65세	대학원 강사	불교	박사	10월 28일
	5	여	58세	대학 강사	무교	박사	10월 31일
	6	여	57세	대학원 강사	무교	박사	11월 1일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각 전문가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 대면면접을 실시하였고, 1명만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화상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방식은 반구조화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녹취에 대한 연구동의서(부록 1)를 받았으며 면접 시행 전에 불교계 및 학계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와 실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에 성년례의 필요성, 성년대상자 사전교육, 성년례 프로그램의 형식 구성, 부모 대상 교육 그리고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부록 2)을 위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문에 따른 응답 내용을 녹취한 후 추후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모든 전사 자료는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거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이행하였다.

### 3. 용어의 정의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예서(禮書)에 기록된 장차 관례를 행할 사람인 ‘장관자(將冠者)’의 의미를 오늘날의 ‘성년대상자’로 지칭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년대상자가 2박 3일 동안의 수행과정을 통해 성년례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스스로 성인이 되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을 ‘성찰교육 프로그램’으로, 불교의 수계식을 접목해 성년례에 임하는 의식을 ‘성년수계식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셋째, ‘사찰’과 ‘선원’이 모두 ‘절’을 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찰은 사물(四物: 법고·운판·목어·종)이 갖추어진 큰 절을, 선원은 도심에 있는 규모가 작은 절을 지칭하고자 한다.

넷째, 불교에서 ‘수계식’은 불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에 따를 것을 형식을 갖추어 공적으로 서약하는 예식을 의미한다.

## II. 불교의 수계식과 성년례

### 1. 불교에서의 성년례 의미

인간은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 같은 사회화의 과정상에서 생물학적인 성장만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도록 일련의 의례나 의식을 만들어 삶의 질서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존속을 꾀하는 것이다.

여러 민족들에게서 통과의례로 치러지고 있는 성년례는 각국의 문화만큼이나 다양하다. 유대교, 기독교, 불교 등의 문화권에서는 종교적 의례로 성인식을 치른다. 유대교에서는 소년이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bar mitzvah)’라는 성년식을 치르고, 천주교에서는 유아 영세를 행한 곳에서 견진성사를 행하여 한 사람의 신자가 되었음을 축하한다. 남방불교에서는 20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하여금 단기간 출가하여 승려 체험을 하게 하는 ‘신분의식’을 통해 성년례를 치른다.<sup>8)</sup>

불교의 경우 혼례가 ‘물리적·사회적 어른 되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성년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실존적 어른 되기’임을 석가모니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석가모니 일대기는 태자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싯다르타가 결정적으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생로병사의 근원적 고뇌의 인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싯다르타가 동문 밖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이 굽은 노인을 만나면서 늙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문 밖에서는 신음하는 병든 사람을 만나면서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고통당할 수

8)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성년식, <http://naver.me/xTeg2IUX>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서문 밖에서는 죽은 자의 장례행렬을 만나면서 젊음과 쾌락이 덧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 후, 북문 밖에서 출가한 사문(沙門)을 만나 스스로 마음을 닦으며 살아가는 길만이 번뇌를 끊을 수 있음을 깨달아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이를 불교에서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고 지칭을 한다.<sup>9)</sup>

석가모니가 사문유관을 통해 자각한 근원적 괴로움이란 누구든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일생(一生)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거나 혼인으로 가정을 형성하는 등의 사회적 과정에 몰두하며 살아가지만, 석가모니는 무상한 변화로 진행되는 존재론적 과정을 직시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 일생의례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의 인정에 앞서, 일생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사유이다. 곧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혼인을 하고, 노인으로 진입하고, 죽음을 맞는 각 단계마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이 모든 단계는 존재론적 과정이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sup>10)</sup>

이를 종합해볼 때 불교에서 바라보는 성년례는 ‘참다운 성인 되기’로 일생을 자각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의례로 이를 통해 이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2. 불교의 수계식 과정

---

9) 이자량·이필원,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민족사, 2016, p.20.

10) 구미래,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민족사, 2012, p.154.

## 1) 수계(受戒)의 개념

불교에서 ‘수계’란 출가자, 재가자의 구별 없이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에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불자로서 새로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오계(五戒)와 법명(法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계(戒:계율) 정(定:선정) 혜(慧:지혜)를 불교에서는 삼학(三學)이라 하여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칭한다. 그중 첫 번째인 ‘계(戒)’는 경계하다 또는 삼가다는 뜻이며 불도를 닦기 위해 자발적으로 삼가고 경계해야 할 도덕적 지침을 말한다. 부처가 오계를 제정한 이유는 불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악업을 짓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sup>11)</sup>

구체적으로 오계를 살펴보면 첫째,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일체를 내 생명같이 존중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불투도계(不偷盜戒)는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지 않는 것이다. 셋째, 불사음계(不邪淫戒)는 일체 사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맑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넷째, 불망어계(不妄語戒)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며 항상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다섯째, 불음주계(不飲酒戒)는 바른 마음을 지키고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다.<sup>12)</sup> 이 같은 오계의 내용을 보면 선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자로서 이러한 계를 수지한 뒤에는 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수행의 규범으로 삼아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1) 박성완, 수계와 연비, 한마음 제102호, 2018, p.36.

12) 불교방송 편성제작국, 알기 쉬운 불교, BBS불교방송, 1992, p.161.

## 2) 수계식의 과정

수계식의 과정으로 제1의 의식은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수계를 고하는 거향찬(擧香讚)으로 시작된다. 거향찬은 향을 살라 삼보에 수계를 고하는 의식이다. 제2의 의식에서는 부처님·보살·성현들의 가르침, 즉 삼보를 청하는 의식인 청성(請聖)을 행한다. 제3의 의식은 청사(請師) 즉 수계법사를 청하는 의식으로 수계법사가 등단하면 수계자는 삼배(三拜)를 한다. 제4의 의식은 개도(開導)로 계사가 계를 받는 뜻을 설하며 계율에 대한 하나하나의 법을 일깨워주는 의식이다. 계사스님이 오계의 조목들을 하나씩 들어 ‘지키겠느냐’고 물으면 수계자는 합장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스스로 다짐한다.

제5의 의식은 참회 진언을 외며 앞으로 나아가 왼팔을 걸어 스님들께 수계를 증명하는 연비(燃臂)를 받는다. 연비란 ‘팔을 태운다’는 뜻이다. 실제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는 팔뚝에 쭉을 올리고 향으로 불을 붙여 직접 살을 태운다. 그러나 재가자의 수계식은 불붙인 향 끝을 팔뚝에 살짝 눌러 찍는 것으로 대신한다. 연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첫째, 살을 태워서 내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오계의 맹세를 몸과 마음에 새긴다. 둘째, 짧지만 순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동안 지은 죄업에 대해 생각하며 참회한다. 셋째, 부처님의 제자가 된 증표를 지니게 된다. 이 증표는 몸에 보이는 흔적으로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다. 수계의 절차를 통해 계체(戒體: 계를 깨닫고 공덕의 힘이 나타나는 몸)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후로 매년 수계식 때 다시 연비를 받으며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정화하여 계의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제6의 의식은 수계자 발원(發願)으로 수계자 대표가 앞으로 나와 발원문을 낭독한다. 제7의 의식으로 수계자가 법명(法名)과 법명이 적힌 수계첩을 받는다. 법명은 불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로 태어

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속의 이름이 부모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범명은 법계(法界:진리의 세계)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그 이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sup>13)</sup> 제8의 의식은 회향(廻向)으로 이는 자신이 수행으로 닦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마지막 제9의 의식으로 사홍서원(四弘誓願)과 산회가(散會歌)를 부르며 식을 마치게 된다.

### 3. 해외의 사례를 통해 본 사찰에서의 성년례

#### 1) 상좌부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원류는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인도 북부 지역이지만, 아소카대왕 시대에 인도 전역, 간다라 지역, 스리랑카 지역으로도 전파되어 불교의 원형이 발전되어왔다. 그 후 인도에서는 11세기쯤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가 점점 쇠퇴해갔고, 육상으로의 무역로가 막히면서 스리랑카를 통해 해상으로 무역로가 발달함에 따라 상좌부불교가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로 퍼진 불교를 남방불교 또는 상좌부불교라 하고,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해진 불교를 북방불교 또는 대승불교라고 한다. 흔히 상좌부불교를 한국, 중국 등의 대승불교에 반하여 ‘소승불교’라 부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 가운데 상좌부불교는 고대 인도 팔리어(Pali language)<sup>14)</sup>로 전승되어온 팔리 문헌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팔리불교’라고도 한다.<sup>15)</sup> 이를 유지하

13) 박성완, 수계와 연비, 한마음 제102호, 2018, pp.36-37.

14)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의 설법이 팔리어로 구전되다가 기록되어 불교연구에 매우 중요한 언어일 뿐만 아니라, 상좌부 불교에서는 지금도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주된 언어이다.

15) 마성, 동남아 상좌불교의 역사와 현황, 불교평론 33, 2007.

는 각국의 언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불교를 위해 빨리어를 공통적 언어로 사용하고, 빨리어로 된 삼장(三藏:경,율,논)을 지키고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상좌부불교의 핵심이다. 또 상좌부불교의 출가자들은 출가와 환속이 자유롭고, 육식을 금기시하지 않으며, 오후 불식(不食)을 하고, 갈색의 가사를 입는다.<sup>16)</sup>

16세기 이후 식민지 지배를 사백여 년 동안 받아온 스리랑카 불교는 서구 세력들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아 승가의 범통이 끊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승가가 전멸되고 승려 교육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스리랑카 승가는 태국,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족계(具足戒: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계율) 전통을 되살려 재건이 되었다.<sup>17)</sup>

스리랑카 불교의 원동력은 담마스쿨(Dhamma schoo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일요 불교학교’로 지칭되는데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사원이라면 반드시 교육 시설을 갖추고 마을 전체가 지원을 한다. 일요일 아침 7~8시면 다섯 살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아이들, 교사들, 자원봉사자들이 사원으로 모여 스님과 선생님의 지도로 빨리어, 영어, 컴퓨터 등의 실용과목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방법에 대해 배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시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순환의 공동체 불교의 전통을 이어간다.<sup>18)</sup>

스리랑카에서는 일요 불교학교를 통해 승려의 생활이 어떠한지 잘 알기 때문에 8~9세 정도만 되면, 부모의 동의하에 아이들도 출가를 하기도 한다. 출가를 한 뒤에 얻게 되는 공덕을 알려주고 부모가 보내고자 하는 사원의 주지 스님이 출가를 허락하면 수행 생활을 시작한다. 1년 정도 사원의 주지 스님을 비롯한 선배 스님들의 인도를 받으며 기본 교리부터 익힌 후 좋은 날을 받아 여러 사람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사미계를 받고 출가하게 되는데, 출가하는 아이에게 입힐 가사나 행사에 쓰이는 비용을 그의 부모와 사원의 신도들이 부담

16) 정준영, 테라와다 불교의 발생과 흐름, 한국불교학 55, 2009, pp.216-217.

17) 사미타,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와 현황,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69-70.

18) 구미래, 스리랑카 불자들, 불교신문, 2019-04-01.

하며 큰 잔치를 연다. 어린 나이라도 출가하면 비구 대접을 해주고 부모를 포함해 모든 재가자들이 큰절을 한다. 출가한 사람은 절을 받고 축복의 의미가 담긴 계송을 일러준다. 승가학교인 빠리웨나(pirivena school)에 입학하면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행을 한다. 승가학교마다 교육과정과 교육 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8~9년의 과정을 마치고 국가공인학력인정시험을 보면 졸업을 하게 된다. 20세가 되면 구족계를 받는데 5월부터 6월 사이에 적당한 날을 받아서 수계자의 부모와 친척, 출가한 사원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해준다.<sup>19)</sup>

스리랑카는 인도로부터 상좌부불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국가이며, 빨리 삼장을 처음 문자로 기록했을 뿐 아니라 상좌부불교를 상징하는 문헌들이 저술된 나라이기도 하다.<sup>20)</sup> 학문불교가 특징인 스리랑카는 교학 전통이 주류를 이루어, 대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학승들이 많이 배출되었다.<sup>21)</sup> 붓다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스리랑카 불자들과 승단의 노력으로 오늘날 붓다의 말씀을 전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2) 미얀마

미얀마는 스리랑카로부터 상좌부불교를 받아들인 국가인 동시에 상좌부불교를 부흥시켜 다시 스리랑카에 전해준 나라이기도 하다. 오늘날 아비담마(論) 연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며, 붓다의 가르침을 수행으로 실천하는 상좌부불교 국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미얀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그대로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19) 사미타,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와 현황,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68-69.

20) 정준영, 테라와다 불교의 발생과 흐름, 한국불교학 55, 2009, pp.226-227.

21) 망글라 칼라나푸르, 스리랑카 불교의 교육과 수행체계 고찰,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40.

미얀마 사회에서의 성년례는 ‘신뽀(Shinbyu)’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남자 청소년은 득도식(得道式)을 행하고, 여자 청소년은 득도식은 하지 못하고 미얀마어로 나따밍갈라라는 천이식(穿耳式:Ear Boring Ceremony)<sup>23)</sup>을 행한다. 이러한 의례를 치르는 나이는 계율에 의하면 15세이다. 삭발을 하고 불문에 들어가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불교 의식은 대개 와드왕(태양력으로 7월부터 10월까지)인 우안거(雨安居) 기간에 행해진다. 점성가에 의하여 득도식을 올리기에 좋은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면 성년대상자의 가족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친척과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득도식의 날짜와 시간을 알린다. 득도식을 행하게 되는 청소년은 의식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는 각별히 몸을 조심한다. 특히 우물이나 연못 가까이에서 목욕하는 것을 금하고 나무에 오르거나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한다. 이 모든 것은 만낫(Mannat)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신으로부터 성년대상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득도식 당일이면 성년대상자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카필라국의 태자였다가 출가한 것을 모방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며, 우차(牛車)나 마차, 수레 등을 타고 마을 안을 돈다. 이때 전통 민속악단의 악기들로 연주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친척과 이웃, 친구들이 성년대상자의 주위에서 즐겁게 축하한다. 이후 예정된 수도원으로 가서 삭발을 하고 사미계를 수지한 후 승단의 일원이 된다.<sup>24)</sup>

이와 같은 미얀마의 출가의식은 남성에게 있어 중요한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어릴 때는 부모의 슬하에서 보살핌에 의존했다면 이 의식을 행한 후 승단에 머무는 일정 기간 동안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이는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자신을 찾는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자 새

22) 정준영, 테라와다 불교의 발생과 흐름, 한국불교학 55, 2009, p.234.

23) 천이식은 소녀의 귓볼에 구멍을 뚫어 성년식을 대체하는데 이 의식은 보통 여성이 초경을 경험한 후에 행해진다. 이때부터 머리를 펴서 가지런히 묶기 시작한다.

24) 강능희, 미얀마 중족의 신관·인간관·내세관에 대한 기독교 선교전략,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62.

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 미얀마의 출가문화는 ‘일자출가 구족 생천(一子出家 九族生天)’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면 출가자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그 공덕이 미치므로 출가가 장려되는 사회적 풍토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얀마나 태국에서 행해지는 단기 출가는 출가가 곧 공덕이라는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sup>25)</sup>

득도식을 마치면 수련승은 장로 스님과 선배 스님들을 따라 발우를 들고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고귀한 가르침의 문에 들어서면 경전과 명상수행을 배우고 자신의 인격을 한층 성숙시키게 된다. 만일 이 생활이 그에게 적합하고 적응할 수 있다면 20세가 되었을 때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어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승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육체적인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생일이라면, 신뵈 출가의식은 정신적인 탄생을 상징한다. 비록 1주일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때 얻은 삼보(三寶)에 대한 공경심과 불교적인 심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출가의식 이후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뵈 의식을 정신적인 재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26)</sup>

### 3) 태국

태국 역시 스리랑카와 미얀마로부터 상좌부불교를 받아들였고 상좌부불교의 특징처럼 계율의 엄격함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가이다.<sup>27)</sup>

우리나라의 성년례처럼 태국에는 ‘부엇낫(Buat Nhak)’ 또는 ‘우빠솨봇(Upasombot)’ 의식이 있다. ‘부엇낫’은 불교 의식으로 남자가 수도자가 되

25) 정기선, 미얀마의 불교 문화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p.79-82.

26) 정기선, 미얀마의 불교 문화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86.

27) 정준영, 테라와다 불교의 발생과 흐름, 한국불교학 55, 2009, p.238.

기 위해 일시적으로 출가하는 득도식에 해당한다. 이 의식은 석가모니의 은택에 보은을 표하는 불교의식으로 인도에서 전래가 되었다. 이것이 태국으로 들어오면서 토착화된 민속의 불교의식으로 발전되었다. 태국 최초의 통일 왕국인 쑤코타이 왕국시대에 리타이왕(1347-1374)이 왕의 신분으로 최초의 출가를 하였고, 그 후 역대 왕들도 따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출가가 당시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자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태국에서는 일시적이더라도 출가하여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을 공덕을 쌓는 행위 중 가장 최고의 공덕으로 꼽아서, 대개 3개월 동안의 우기인 ‘카오판사’ 기간에 가장 많이 출가를 한다.<sup>28)</sup>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자식이나 혈육으로서 불문에 입문하면, 망인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장례식을 끝낸 뒤에 곧바로 출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시신 앞에서 출가한다는 의미인 ‘부엇나화이’ 또는 ‘부엇나쑤’ 이라고 하고, 이를 가장 큰 효행으로 여기게 된다. 수도 기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3개월 정도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일 년 정도이지만, 평생 환속하지 않기도 한다.<sup>29)</sup>

일정 기간 동안 수도한 후 환속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숙된 성인으로 인식이 되며, 성년례를 행한 성관(成冠)의 의미로 이름 앞에, 배우고 깨달아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의 ‘딧’ 이라는 경칭을 붙여 부른다. 이는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불교적 윤리체계의 행동화,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능력을 모두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중책을 맡거나, 신용거래를 하거나, 청혼하거나, 그 밖에 모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딧’ 이라는 경칭은 책임과 신뢰의 표상이 된다. 특히 남자의 수도 생활 경력은 청혼할 때 필수조건이 되어, 여자 측의 부모는 신랑감의 가문, 재산, 인물, 지위보다는 ‘딧’ 이냐 아니냐를 중요시한다. 이는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sup>30)</sup>

28) 조홍국, 태국의 공덕지향적 불교신앙과 민간신앙, 민속학연구 19, 2006, p.127.

29) 안중량, 태국의 불교와 통과례, 僧伽 18, 2001, pp.120-121

출가 일자를 정한 출가자(짜오낙)는 부모가 준비해준 화(花), 향(香), 축(燭)을 쟁반에 담아 들고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중과 마을의 어른들 그리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출가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리며 인사를 한다. 어른들은 관습에 따라 칭찬과 축하를 해주면서 형편에 따라 축의금을 전해준다. 태국 사람들은 부엌낙 의례를 위해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행사를 돕는 것을 가장 큰 공덕을 쌓는 행위로 믿는다. 이 의례는 이틀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집에서 행하는 ‘탐관낙’ 의식이고 두 번째는 다음날 사원에서 행하는 ‘우빠쑈똌’ 의식이다. 탐관낙 의식은 집에서 오후에 일가친척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 의식의 목적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불법(佛法)을 터득하고자 속세를 떠나는 데 있어 불안감과 긴장감을 극복하도록 용기와 신념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출가자는 삭발하고 목욕재계한 다음 흰색 천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식당으로 들어간다. 이어서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출가자를 중심으로 둘러앉는다. 참가자들은 각기 가져온 필수생활용품을 비롯해 화, 향, 축 외에 예불에 필요한 물품과 다음날 절에 시주할 공양물을 가져다 놓는다. 이것은 참석자들이 출가자와 함께 공덕을 쌓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이다.<sup>31)</sup>

예식이 시작되면 빈객들은 시문 축사를 운율에 맞춰 낭송하고 참석한 하객들은 낭송이 끝날 때마다 북과 팽과리를 두드리며 환호한다. 여기에 참석하는 빈객들은 출가자 부모의 친구 또는 동네에서 덕망 있고 예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식이 끝나면 출가자의 부모는 빈객을 비롯한 모든 하객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잔치를 베푼다. 이 잔치는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데 보통은 민속악단을 불러 연주를 하게하고, 여유 있는 가문에서는 가무와 무술 공연도 곁들인다.<sup>32)</sup>

30) 태국정부관광청, 태국의 풍습과 명절, [www.visitthailand.or.kr](http://www.visitthailand.or.kr), 2006.03.25

31) 안종량, 태국의 불교와 통과의례, 僧伽 18, 2001, p.121.

32) 안종량, 태국의 불교와 통과의례, 僧伽 18, 2001, pp.121-122.

집에서의 의식이 끝나면 다음날은 사원에서 우빠솨뭇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출가자가 계율을 수계하여 승려가 되는 예식을 말한다. 출가자는 말이나 가마 또는 자동차를 타고 사원으로 향한다. 이때 축하행렬을 이루어 맨 앞에는 민속악단과 승려에게 시주할 공양물을 든 사람, 그 뒤로 오색 꽃을 든 사람과 출가자 그리고 뒤쪽에 가족과 친척, 친지들이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뒤따라간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향과 축을 밝히고 부처님 앞에 삼배(三拜)하고 부모로부터 가사삼의(袈裟三衣)를 전해 받고 절을 한다. 가사삼의를 양팔에 올려놓고 십여 명의 승려가 앉아 있는 곳으로 무릎걸음으로 들어가 사미계를 수지하고 황색의 가사삼의로 갈아입는다. 모든 의식이 끝나면 가족과 하객들은 가지고 온 공양물을 승려에게 보시한 뒤 귀가하고, 출가자는 예정된 기간 동안 사원에서의 수도생활을 시작한다.<sup>33)</sup>

이상에서 살펴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서 행해지는 득도식은 우리나라의 성년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를 위해 불교의 수행 계율을 받아들이게 되는 성년대상자는 물론 부모를 비롯한 주위 어른들이 함께 준비를 해나간다. 이는 성년이 되는 과정을 격려하고 축하를 해주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가족과 사회 모두가 그의 성년 됨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 불교의 사찰에서 스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계율을 지키는 수행에 임하게 되는 성년대상자는 자기 자신이 성인으로 변화됨을 자각하며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

33) 안종량, 태국의 불교와 통과의례, 僧伽 18, 2001, pp.122-123.

### Ⅲ. 우리나라 성년례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

#### 1. 시대에 따른 성년례의 변천

##### 1) 근대 이전

성년례를 포함하는 관혼상제는 송(宋)나라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 『가례(家禮)』로 정리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기원전부터 존재했었다. 즉 『대대예기(大戴禮記)』가 고대부터 있어왔고, 삼례(三禮)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예기』, 『주례』, 『의례』 등을 통해 유교식 일생의례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갔다.<sup>34)</sup> 이러한 문헌들과 학자들의 예설을 토대로 저술된 『가례』는 관혼상제를 가정과 개인의 중요한 의례로 규정하였는데 성리학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말에 이를 수용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기』에 “관례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지 책에 전해오는 정문이 없다”고<sup>35)</sup> 하였고, 『주자어류』에도 “관례와 혼례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고<sup>36)</sup> 되어있어 관례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고려사』 예종(睿宗) 3년의 기록에 “신해에 왕태자가 원복을 수춘관에서 가(加)하니 백관이 표하(表賀)하였다”<sup>37)</sup>고 하였고, 동서(同書) 의종(毅宗)의 상정예문(詳定禮文)에도 “왕자에게 원복을 가(加)해 의(儀)를 행하였다”는<sup>38)</sup> 기

34) 김시덕, 한국 일생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 39, 2009, p.73.

35) 『禮記』, 「冠義」, 冠禮起早晚書傳無正文.

36) 『朱子語類』, 冠禮昏禮不知起於何時.

37) 『高麗史』, 世家, 卷第十四, 辛亥, 王太子 加元服于壽春宮, 百官表賀.

록이 있어 고려 시대에는 궁에서 왕족을 중심으로 관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 사대부가에서 관례가 이행된 것은 성리학과 함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전래된 고려 말부터 조선 초로 추측이 된다.

조선 시대에 들어 유교를 국교로 삼게 되면서 송유억불 정책으로 왕족과 사대부 사이에서 관례를 이행하게 되었고<sup>39)</sup> 특히 예를 중요시하는 가문에서는 관례를 사례(四禮) 중 가장 우선시 되어 치러야 하는 의례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주자가례(朱子家禮)』는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예학자들의 연구가 심화되었고 그 가운데 조선 후기 학자이며 정치가인 이재(李穡, 1680~1746)가 『가례』의 원칙을 지키되 시속에 맞추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편람』을 저술하였다. 이후 이재의 자손들에 의해서 수정(修整)되고 정사(淨寫)되어 이재가 졸한 후 거의 100년이 지난 1844년(헌종10)에 간행이 되었다. 이 문헌은 일반 사대부가에 보급되어 의례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00년에는 황필수(黃泌秀)와 지송욱(池松旭) 등이 『사례편람』에 보정을 더해 『증보사례편람』을 간행하였다. 『증보사례편람』의 관례(冠禮)와 계례(笄禮)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

관례는 남자 나이 15세에서 20세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증보사례편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예전에 20세에 관을 씌운 것은 어른의 책임을 지우는 예이기 때문이다. 근세 이래로 인정이 경박해져 10세만 넘으면 (관

38) 『高麗史』, 卷六十六, 志 卷第二十, 禮八.

39) 강옥수, 조선시대 의례서에 나타난 관·계례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8.

례를 행해서) 총각으로 있는 사람이 적다. 이제 15세 이상으로 『효경』과 『논어』에 통하고 예의를 대충 알기를 기다린 다음에 관례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40)</sup>

반면 여자의 경우 나이 15세가 되면 시집을 가게 되지 않더라도 계례를 한다<sup>41)</sup>고 하였다.

## (2) 시기

관례의 시기는 반드시 부모가 기년복(墓年服, 일년복) 이상의 상(喪)이 없어야만 행할 수 있다<sup>42)</sup>고 하였다. 또한 『증보사례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대공(大功, 9개월 상)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관례를) 행할 수 없다. ‘만약 아들에게 관례를 하려고 할 때, 그날이 이르기 전[未及期日]에 자취·대공의 상(喪)을 만나게 되면 상복을 입은 채 상관(喪冠: 거상 중에 쓰는 관)을 씌운다’고 했다. 【「주」: ‘그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기일(期日)의 이전에 있는 것이다. 상복을 입은 채 상관을 씌운다.’ 는 것은 상례의 성복(成服)을 한 다음에 상관을 씌운다는 것이니, 자취(齊衰) 이하는 상복을 입고 관을 씌우되, 참취(斬衰: 아버지상으로 삼년상)인 경우에는 (관례를) 할 수 없다.】<sup>43)</sup>

이와 더불어 관례를 이행하는 시기를 언급하며 한 해의 첫 달인 정월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월에 반드시 구애되지는 않아도 됨을 덧붙여 기록하였

40) 『增補四禮便覽』, 冠禮, 司馬溫公曰古者二十而冠 所以責成人之禮也 近世以來人情輕薄過十歲而總角者少矣 今且自十五以上竣其能通孝經論語 粗知禮義然後冠之其亦可也.

41)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笄禮, 年十五 雖未許嫁 亦笄.

42) 『增補四禮便覽』, 冠禮, 必父母無墓以上喪 始可行之.

43) 『增補四禮便覽』, 冠禮, 大功未葬亦不可行. 如將冠者未未及期日而有齊衰大功之喪則因喪服而冠.

다.<sup>44)</sup>

한편 남자의 나이 20세, 여자의 나이 15세는 각기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관례와 계례를 치르기에 부합되는 시기임을 『예기(禮記)』를 인용해 밝히고 있다.

【「관의(冠儀)」 「소」: 남자는 양(陽)이니, 20살에 관례하여 음수(陰數, 짝수 20)로 양을 이룬다. 여자는 음(陰)이니 15살에 계례하여 양수(陽數, 홀수 15)로 음을 이룬다. 음과 양을 서로 이루고 성명(性命)을 서로 통한다.】<sup>45)</sup>

### (3) 장소

행례의 장소로 관례는 사랑채의 대청에서 이루어지며 관례를 주관하러 오는 관빈(冠賓)의 대기소도 마련해둘 것으로 이르고 있다.

휘장으로 대청의 동북에 예를 행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대청의 양쪽에 계단이 없을 경우에는 백토(白土)로 줄을 그어서 나눈다. 대야와 수건을 마련한다. 【「사관례」에는 ‘동쪽 영(榮: 처마)《「주」: 처마이다》에 놓는데 당의 길이에 따라 남북으로 놓는다’ 고 되어 있다. 《「향음주례」 「소」에 ‘가령 당의 길이가 두 길이라면 대야[洗]도 당에서 두 길 떨어져서 마련한다 ‘고 되어 있다.】 물은 대야 동쪽에 놓는다. 【「의절」: 유막(帷幕: 양장)으로 빈자의 대기소를 마련한다. 《대문 밖 서쪽에 있게 한다.》】<sup>46)</sup>

반면 계례는 안채의 대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4) 『增補四禮便覽』, 冠禮, 古禮筮日今不能然 但正月內擇一可也.

45)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笄禮, 冠儀疏 曰男者陽類二十而冠以陰成乎陽 女者陰類十五而笄以陽成乎陰 陰陽之相成性命之相通也.

46) 『增補四禮便覽』, 冠禮, 以帘幕爲房於廳事之東北或廳事無兩階則以惡書而分之 設盥帨.

종자(宗子)의 주부(主婦)는 중당(中堂:안채 대청)에 자리를 정한다. 종자가 아니면 종자와 함께 사는 경우 사실(私室: 자기가 거처하는 채)에서 행하고, 종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위의 의식대로 (자기가 거처하는 중당에서) 행한다.<sup>47)</sup>

#### (4) 주관자

『증보사례편람』에서 관례를 주관하는 관빈(冠賓)은 빈자(賓者)로 기록되어 있다. 빈자는 관례를 치를 사람의 부친이 현명하며 예의를 아는 친구를 택해 정중히 청하도록 하였다. 즉 부친은 직접 친구를 방문하거나 서신을 써서 관빈이 되어주기를 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례(古禮)에는 빈자(賓者: 주례자)를 정하는 데 점을 쳤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만 현명하고 예의를 아는 친구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날 주인이 심의를 입고 빈자의 집 문에 이르면, 청을 받는 사람은 평상의 예대로 나가 맞이한다. 계자(戒者:청하는 사람)는 일어나서 “○○○에게 아들 ○○가 있어 장차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오니 당신께서 이를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한다. 대답은 “○○○는 변변치 못하여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당신을 욕되게 할까 염려되어 감히 사양 합니다” 라고 한다. 계자는 “당신께서 마침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시 청한다. 대답은 “당신께서 거듭 명하시니 ○○○가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 【「사관례」: 주인이 두 번 절하면 빈자가 답하여 절하고, 주인이 물러가면 빈자가 절하며 배웅한다.】 사는 곳이 멀면 편지를 써서 【 ‘운운… ’ 】 자제를 시켜 청하되, 청을 받는 사람이 사양하고, 심부를 간 사람이 다시 청하고 나면 허락하고 답장을 【 ‘운운… ’ 】 쓴다.<sup>48)</sup>

47)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笄禮, 宗子主婦則於中堂 非宗子而與宗子同居則於私室 與宗子不同居則如上儀.

48) 『增補四禮便覽』, 冠禮, 古禮筮賓今不能然 但擇朋友賢而有禮者可也 是日 主人深衣詣其門 所戒者出見如

반면 계례는 계례를 치를 사람의 모친이 친인척 중 어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을 택해 계빈(戒賓)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빈은 친인척의 여자들 중에서 어질고도 예의가 있는 사람으로 골라 삼고, 편지지에 그 말을 써서 【 ‘운운…’】 사람을 시켜 보낸다. 【주자: 시집가게 되면 주부(主婦)가 마땅히 외인(外姻:며느리나 사위의 가족으로 사돈 집안)에게 청하여 여빈(女賓)을 삼아, 비녀를 꽂게 하여 예를 이룬다. 시집가기 전에 계례할 때에는 여빈을 청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여러 부녀자 중에서 택해 계례를 행한다.】<sup>49)</sup>

#### (5) 준비

다음으로는 관례와 계례를 행하기 위한 준비로 행례 장소에 필요한 제구(諸具)와 의식에 필요한 복식(服飾) 및 제구(諸具)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① 행례 장소에 필요한 제구(諸具)

관례의 경우 역막(帟幕:장막) 2개, 병(屏:병풍), 석(席:자리), 악(壺:백토), 관분(盥盆:대야) 2개, 작(勺:물 뜨는 구기) 2개, 세건(帨巾:수건)을 행례 장소에 마련한다. 계례의 경우에는 병(屏:병풍), 석(席:자리), 관분(盥盆:대야), 세건(帨巾:수건)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

常儀 戒者起言曰某有子某 若某之某親有子某 將加冠於其首 若宗子自冠則但曰某將加冠於首願 吾子教之也對曰某不敏 恐不能供事 以病吾子 嚴辭戒者曰願吾子之終教之也 對曰吾子重有命 某敢不從 地遠則爲書 遣子弟致之 所戒者辭使者固請乃許而復書.

49)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笄禮, 賓 亦擇親姻 婦女之賢而有禮者爲之 以牋紙書其辭 使人致之.

## ② 의식에 필요한 복식 및 제구

관례 의식에 필요한 복식과 제구는 난삼(襪衫)·대(帶:띠)·화(靴:가죽신)·조삼(阜衫:검은옷)·혁대(革帶:가죽띠)·혜(鞋:짚신)·심의를(深衣)·대대(大帶:큰띠)·이(履:가죽신)·즐(櫛:빗)·약(掠:망건) 등으로 이것 모두 탁자에 놓아 방 안에 늘어놓는다고 하였다. 이때 깃은 동쪽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놓는다. 또한 주주(酒注:술주전자)·잔(盞:술잔)·반(盤:잔받침) 【「사관례」 각사(角柶:뿔 술가락)·포(脯:육포)·혜(醢:식혜)는 남쪽을 윗자리로 한다.】 을 역시 탁자에 두고 옷 북쪽에 늘어놓는다. 또한 복두(幘頭)·모자(帽子)·관(冠)·계(笄:비녀)·건(巾)은 각각 쟁반 위에 놓고 보자기로 덮어 탁자에 두고 서쪽 계단 밑 (조금 서쪽)에 늘어놓고 집사자가 이를 관리한다. 관자의 자리는 동서(東序:동쪽벽)에 마련한다. 다음으로 탁자(卓子) 3개를 준비하여 시가, 재가, 삼가의 복장을 준비해둔다.

계례의 경우에는 관(冠:죽두리), 계(笄:비녀), 사(纚:머리싸개), 배자(背子)를 마련한다. 또한 빗, 주전자, 술잔을 관례 때와 같이 방안에 늘어놓는다. 이외에 반(盤:쟁반), 주주(酒注:술 주전자), 잔반(盞盤:잔과 잔 받침)을 준비하는데 술주전자, 잔과 잔 받침은 모두 계자에게 술 한 잔을 내릴 때 쓰는 것이다.

## (6) 절차

『증보사례편람』에 기록된 관례와 계례는 준비과정, 시행과정, 종결과정으로 각기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관례의 절차

준비과정으로 (관례날) 삼일 이전에 주인은 사당에 고한다. 계빈(戒賓:주례자인 관빈을 청함) 한다. 하루 전날 숙빈(宿賓:관빈에게 미리 고함) 한다. 관례

를 치를 장소를 설치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관복을 늘어놓는다. 주인 이하는 차례로 선다. 빈이 도착하면 주인은 맞이하고 들어가 당(堂: 대청)에 오른다.<sup>50)</sup>

시행과정으로 시가(始加)의 절차에서 관빈이 장관자(將冠者:장차 관례를 치를 사람의 의미로 칭함)에게 읍하면 장관자가 자리에 나아가고 관빈은 축사를 하고 관과 건을 씌운다. 관자(冠者:이제는 관을 썼으므로 관자로 칭함)는 방에 가서 사계삼(四溪衫)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고 대대(大帶)와 條(끈)를 두르고 신을 신고 나온다. 재가(再加)에는 관빈이 축사를 하고 모자를 씌우면, 관자는 다시 방으로 가서 심의(深衣)를 벗고 조삼(阜衫)에 혁대(革帶)를 두른 뒤 혜(鞋: 가죽신)를 신고 나온다. 삼가(三加)에는 관빈이 축사를 하고 복두를 씌우면 관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조삼(阜衫)을 벗고 난삼(襪衫)을 입고 대(帶)를 두르고 화(靴)를 신고 나온다. 다음으로 관빈이 관자에게 초(醮:술을 한잔 내림)한 뒤, 마지막으로 관자에게 자(字)를 내려준다. 이어서 차(次:대기소)로 간다. 관빈이 주인에게 물러나기를 청하면, 주인은 관빈에게 접대하기를 청한다.<sup>51)</sup>

종결과정으로 주인은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뵙고, 다음으로 관자는 어른들을 뵙고 인사를 드린다. 관자의 집에서는 예빈(禮賓:빈을 대접함)한다. 그런 다음 관자는 나가서 향선생(鄉先生)과 아버지의 친구들을 뵙는다.<sup>52)</sup>

## ② 계례의 절차

준비과정으로 (계례할) 기일 사흘 이전에 계빈(戒賓:주례자를 칭함) 하고 하루 전날 숙빈(宿賓:빈에게 확인) 한다. 또한 준비물을 진설(陳設)한다. 그다음

50) 『增補四禮便覽』, 冠禮, 前期三日 主人告于祠堂, 戒賓, 前一日宿賓, 陳設, 厥明夙興陳冠服, 主人以下序立, 賓至 主人迎人昇堂.

51) 『增補四禮便覽』, 冠禮, 賓揖將冠者就席 爲加冠巾 冠者適房 服深衣 納履出, 再加帽子 服阜衫革帶 繫鞋. 三加幘頭襪衫納靴, 乃醮, 賓字冠者, 出就次.

52) 『增補四禮便覽』, 冠禮, 主人以冠者 見于祠堂, 冠者見于尊長, 乃禮賓, 冠者遂出見于鄉先生 及父之執友.

날에 옷을 늘어놓는다. 차례로 선다. 계빈이 이르면 주부는 맞이해서 들어와 당(堂)에 오른다.<sup>53)</sup>

시행과정으로 주례자인 계빈은 장계자(將筭者:장차 계례를 치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칭함)에게 축사를 하고 족두리와 비녀를 꽂아주고, 계자(筭者: 이제 비녀를 꽂았으므로 계자로 칭함)는 일어나 방에 가서 배자를 입고 방에서 나온다. 이에 술 한 잔을 내리고 자(字)를 준다.<sup>54)</sup>

다음으로 『증보사례편람』에는 종결과정에서 주인은 계자를 사당에 뵙게 한다고 기록하면서 『의절』에 이 조항은 『가례』에는 없고 『구의(丘儀)』에 의해서 보충해 넣었다고 하였다. 이 의식은 아들에게 관을 씌우고 사당에 뵙는 것과 같다. 이에 빈을 대접한다.<sup>55)</sup>

#### (7) 참여자의 범위

참여자의 범위에 있어 『증보사례편람』에서는 관례의 경우 주인 이하는 차례로 선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주인은 조계(阼階:동쪽계단) 밑에 약간 동쪽으로 서향하고, 자제나 친척들은 그 뒤에 두 줄로 서향하는데, 북쪽이 상석(上席)이다. 관자는 어른들을 뵙는다. 부모는 대청 한가운데 남향해서 앉고, 여러 숙부와 형들은 동서(東序:대청의 동쪽 벽)에 있다. 숙부들은 남향하고 형들은 서향한다. 여자들은 서서(西序:대청의 서쪽 벽)에 있다. 숙모들과 고모들은 남향하고 자수(姉嫂:누이와 형수)들은 동향한다.<sup>56)</sup>

계례를 치르는 경우 참여자의 범위는 주부(主婦)가 외인(外姻:며느리나 사위의 가족으로 사돈 집안)에게 청하여 여빈(女賓)을 삼고, 시집가기 전 계례할

53)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筭禮, 前期三日 戒賓一日 宿賓, 陳設, 厥明陳服, 序立, 賓至 主婦迎入升堂.

54)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筭禮, 賓爲將筭者 加冠筭 適房 服背子, 乃醮, 乃字.

55)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筭禮, 主人以筭者 見于祠堂, 乃禮賓.

56) 『增補四禮便覽』, 冠禮, 主人以下盛服就位 主人阼階下少東 西向 子弟親戚在其後重行西向北上, 冠者見于尊長 父母堂中南面坐 諸叔父兄在東序 諸叔父南向 諸兄西向 諸婦女在西序 諸叔母姑南向 諸姉嫂東向.

때는 집안의 여러 부녀자 중에서 택해 계례를 행 한다<sup>57)</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 후기 『증보사례편람』의 관·계례 내용을 토대로 성년례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과정은 부친이나 모친이 주재자(主宰者)가 되어 이행한다. 관례를 치를 장소를 마련하고, 의식의 주례자인 관빈이나 계빈을 정하고,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정성껏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참석자 전원이 위계질서에 의해 자리를 정하여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정결한 분위기에서 의식이 진행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관자(將冠者)나 장계자(將笄者)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sup>58)</sup>

시행과정은 관빈은 장관자에게, 계빈은 장계자에게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답게 행동을 하도록 가르침을 주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장관자와 장계자는 관과 예복을 차례로 갈아입고 성인다운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함으로써 이제부터 새롭게 성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관례의 삼가례(三加禮)는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모자와 옷을 세 번에 걸쳐 바꿔 씌우고 입히는 의례로서 어린이의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분리의례의 성격을 띤다. 초례(醮禮)는 술으로써 예를 행하는 의례로 새로운 지위나 관계, 질서를 상징하는 경과의례로 볼 수 있으며, 자관자례(字冠者禮)는 관자에게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지어주어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례로 기성 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의례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결과정에서는 관자(冠者)와 계자(笄者)가 조상, 부모, 일가 어른들, 동네 어른들과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성년으로서 성인 사회에 통합되고 편입되는 것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대우를 받고 공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하겠다.<sup>59)</sup>

이러한 조선 시대 관례는 개화의 물결과 함께 그 풍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

57) 『增補四禮便覽』, 冠禮, 附笄禮, 主婦當戒外姻 爲女賓使之著笄而遂禮之 未許嫁而笄則不戒女賓而自以家之諸婦行笄禮也.

58)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 17, 2002, pp.31-32.

59)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 17, 2002, pp.38-42.

었다. 그 이유는 첫째 통과례로서 개인의 관례 후 변화가 혼례나 상례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 조선 후기 청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강요된 변발풍습의 영향, 셋째 을미개혁 때 내린 단발령, 넷째 관례가 점차 혼례의 사전 행사가 되면서 약혼식과 융합되어 버린 점, 다섯째 조선 왕조의 몰락과 서구문물의 도래로 유교 사상의 쇠퇴에 기인한 점 등을 들 수 있다.<sup>60)</sup> 더욱이 1910년 일제 강제 점령과 1934년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 발표로 우리의 전통 문화에 왜곡이 이루어지고 1950년 6.25 전쟁 후 의례문화의 혼란기도 맞게 되었다.

## 2) 현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는 관(冠)·혼(婚)·상(喪)·제(祭)의 사례(四禮) 중 관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1969년 12월 4일 동아일보에 박일봉이 ‘성년일’ 제창을 제안하여 이를 계기로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주관하여 1971년 첫 성년일 축하식을 올렸다. 1972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1973년 4월 20일에 제1회 ‘성년의 날’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거행하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에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준칙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성년례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매해 5월 셋째 주간을 성년주간으로 정하게 되었다.<sup>61)</sup>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명시된 내용(그림 III-1)을 살펴보면 성년례의 대상 및 시기는 만 19세가 되는 때이다. 성년례의 장소는 행사 참가자의 규모에 따라 선정한다. 주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이 주례자가 되어 성년대상자들의 성년 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60) 박대순, 조선시대 관례의 사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3.

61) 주영애,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010, p.4.

성년례 준비는 성년례 행사의 홍보, 성년대상자 파악, 장소 선정, 성년대상자 사전교육, 의식 참가자(주례, 사회자, 진행요원 등) 섭외, 성년례 식장 준비(현수막, 좌석 배열, 화분 등), 행사 기념품 등으로 이루어진다.<sup>62)</sup>

###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62) 조희진·김정신, 집단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지 5, 1998, p.156.

〈그림 III -1〉 건전가정의례준칙 성년례 시행령

출처:법제처

[별표 1] 〈개정 2019. 7. 2〉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제6조제2항 관련)

1. 성년례의 식순

가. 개별 성년례

- 1) 개식
- 2) 성년자 배례
- 3) 축사
- 4) 성년선서 및 서명
- 5) 성년선언 및 서명
- 6) 초례(醮禮:성년식에서 술을 마시고 주도를 훈계하는 행사) 및 주례(主禮)의 훈화
- 7) 성년자 배례
- 8) 폐식

나. 집단 성년례

- 1) 개식
- 2) 국민의례
- 3) 성년자 호명
- 4) 성년자 경례
- 5) 주례의 훈화(訓話)
- 6) 성년선서 및 서명
- 7) 성년선언 및 서명
- 8) 초대손님의 축사 및 답사
- 9) 성년자의 초대손님에 대한 경례
- 10) 폐식

〈그림 III-2〉 건전가정의례준칙 성년례의 식순

출처:법제처

성년선서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성년자 ○ ○ ○ (서명 또는 인)

〈그림 Ⅲ-3〉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성년선서

출처:법제처

성년선언

성년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 ○ ○ (서명 또는 인)

〈그림 Ⅲ-4〉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성년선언

출처:법제처

성년례의 절차는 <그림 III-2>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식순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 성년례와 전통 성년례의 의식 절차를 절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개별성년례는 개식, 성년자 배례, 축사, 성년선서(그림 III-3) 및 서명, 성년선언(그림 III-4) 및 서명, 초례(醮禮:성년식에서 술을 마시고 주도를 혼계하는 행사) 및 주례(主禮)의 훈화, 성년자 배례,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반면 집단 성년례는 개식, 국민의례, 성년자 호명, 성년자 경례, 주례의 훈화(訓話), 성년선서(그림 III-3) 및 서명, 성년선언(그림 III-4) 및 서명, 초대손님의 축사 및 답사, 성년자의 초대 손님에 대한 경례, 폐식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 2. 성년례의 시행 현황 및 문제점

### 1) 현행 성년례의 시행 주최와 진행 방법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년례는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의 주최로 진행이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공공기관과 학교(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등에서 시행되었던 성년례의 순서를 통해 현행 성년례의 주최와 진행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각 사례는 『증보사례편람』에 기록된 전통 관례의 절차와 비교해 준비과정, 시행과정, 종결과정으로 구분하였는데 모두 전통 관례와 현대 성년례가 절충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시행과정은 반계넵(A. Van Gennep, 1873-1957)이 제시한 통과의례 단계에 의거해 분리의례, 경과의례, 통합의례로 재정리하였다.

먼저 2007년에 이루어진 서울시와 성남시 주최의 성년례는 대표자를 선정하

여 집단 성년례로 진행되었다. 또한 식후 행사로 축하공연, 다과회, 선물 증정 등을 포함해 성년대상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였다.

학교가 주최한 성년례로 2012년 D고등학교와 2014년 M여자고등학교에서는 사전교육을 진행하면서 성년례의 필요성과 예절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면 다른 성년례 참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줄이고자 대표자 선정 없이 집단으로 성년례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M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명씩을 단상에 올려 모든 성년례 참가자들에게 행사의 주인공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D고등학교에서는 시행과정에서 국선도 시연을 통해 심신 수련의 중요성을 나타냈으며 종결과정에서는 가족대표의 인사가 포함되었다. 2017년 동양대학교에서는 성년례의 시행과정에 전통 관례를 시연하는 순서를 포함하였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집단 성년례를 진행하였다. 2019년 예지원이 주관한 제47회 서울시 주최의 성년례에서는 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시행과정에서 전통 관례의 자(字)를 내리는 절차를 대신해 수훈첩을 개별적으로 성년자들에게 증정하였다.

한편 2014년 M여자고등학교와 2019년 서울시 주최 성년례에서는 시행과정에 성년대상자에게 술을 한 잔 내는 초례(醮禮)를 다례(茶禮)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표 III-1> 전통 관례와 현대 성년례의 절차 비교

구분	전통 관례	현대 성년례					
	증보사례 편람	서울시 2007	성남시 2007	D고등 학교 2012	M여자 고등학교 2014	동양 대학교 2017	서울시 (예지원) 2019
준비과	고우사당/ 계빈/ 숙빈/ 진설/ 의식	성년 대상자 파약/ 의식	성년 대상자 파약/ 의식	의식 참가자 섭외/ 서식준비	성년 대상자 파약/ 의식	성년 대상자 파약/ 주례자	성년 대상자 파약/ 의식

시 행 과 정	정	진관복/ 서립/ 영빈객	참가자 섭외/ 장소선정 / 서식준비 / 행사장 준비	참가자 섭외/ 장소선정 / 서식준비 / 행사장 준비	/ 행사도구 준비/ 사전교육	참가자 섭외/ 장소선정 / 식장준비 / 사전교육	섭외/ 문안준비 / 식장준비	참가자 섭외/ 식장준비 / 사전교육	
		분 리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개식/ 국민의례 / 시상/ 기념사/ 주례입장 / 관·계자입 장/ 상견례/ 초가례·성 년자 다짐/ 재가례·성 년자 다짐/ 삼가례·성 년자 다짐	개회사/ 국민의례 / 축사/ 총학생장 인사/ 주례입장 / 관·계자입 장/ 상견례/ 초가례·성 년자 다짐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국선도 시연/ 거례선언 / 큰손님 모시기/ 성년자 다짐/ 고유례/ 성년선언	개식/ 국민의례 / 주례와 내빈소개 / 성년자 호명/ 성년자 합동배례 / 큰손님 훈화/ 성년 선서와 서명/ 성년 선언과 서명	개회사/ 큰손님 맞이/ 전통 관례시연 / 성년선서	개식사/ 전행사 (고천무)/ 큰손님 맞이/ 성년자 결의/ 가례 (加禮)
			초례	초례· 성년자 다짐	초례· 성년자 다짐	성년례 필증수여 / 술의 의식	다례	초례의식	다례
			통합	자관자례	자를 일러줌·다 짐/ 성년선서 / /	자를 일러줌·다 짐/ 성년선서 / /	큰손님 수훈	성년자 배례/ 내빈축사 / 성년자	성년자 경례

			성년선언 / 성년자 배/ 내빈답배	성년선언 / 성년자 배/ 내빈답배		배례		수훈첩 증정/ 성년자 다짐/ 성년자 재배
종 결 과 정	출취차 현우사당/ 현우존장/ 예빈/ 견우향 선생	폐회사/ 축하공연 / 선물증정	폐회사/ 다과회/ 선물증정	학교장 인사/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필선언 / 식후행사	폐회식	폐회식	폐회식	폐회식
형식		전통 절충형	전통 절충형	전통 절충형	전통 절충형	전통 절충형	전통 절충형	전통 절충형
사전 교육		생략	생략	시행	시행	생략	시행	
대표자 선정		선정	선정	없음	없음	선정	선정	

\* 출처: 김정신·조희진,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6, 2007, pp.55-56;  
최성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58;

김한숙, 전통 성년례의 현대적 적용방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55-63; 박태순, 부모대상 가족중심의 개별 성년례 교육콘텐츠 개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40.

## 2) 현행 성년례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2000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성년례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래 전통 관례와 계례는 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로 성년이 되

는 당사자에게 행례의 의미가 명확했지만, 현행 성년례는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주최하여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최하는 곳의 상황과 결정이 우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성년례에서는 성년대상자 파악, 의식 참가자(주례자, 사회자 등의 의식 진행자) 섭외 등이 주요한 준비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참석 인원, 장소, 절차 등도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년례가 주최 측의 편익에 의해 진행될 우려가 있고 성년례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집단 성년례의 특성상 의식에 참석한 성년대상자에게 성년례의 의미를 주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sup>63)</sup> 전통 관례와 현행 성년례의 구조를 비교한 조희진과 김정신(1998)도 전통 관례는 개인을 대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성년자 본인이 모든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만, 현행 성년례는 대부분 집단으로 행해지면서 성년 대표자라는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여 이를 중심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성년자들은 성년 대표자를 위한 들러리로 참여하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64)</sup>

둘째, 사전교육도 없이 성년례가 하루의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경우 성년대상자가 의례의 절차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전통 관례와 절충된 의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전통 관례에 대한 이해 없이 성년례 당일에 난해한 용어 사용으로 의례가 진행이 된다면 성년 당사자들과 참석자들 모두 각 절차에 담겨있는 뜻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성년례의 목적은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심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학습하여 올곧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통 성년례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시연을 진행하거나 현대 성년례 속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년례를 이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에

63) 주영애, 가족행사로서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010, p.4.

64) 조희진·김정신, 집단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지 5, 1998, p.163.

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송정애 등(2014)도 전통이 새로운 창조의 주체이고 가치 규범의 기초가 된다고 볼 때, 전통적인 관례와 계례에 내포되어 있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의의를 현대에 맞는 가치로 되살려 재해석한다면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sup>65)</sup>으로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 19세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연령이다. 이 시기의 청년들은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발달 단계에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불안한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sup>66)</sup> 따라서 성년례를 진행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교육은 성년대상자들에게 의례가 갖는 의의를 인식하고 그를 통해 성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관례나 계례를 계획한 후 예식을 주관해 줄 수 있는 관빈이나 계빈을 선정하여 정중히 부탁을 하고, 각 절차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준비하여 의례를 시행했던 것에 비해 현행 성년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그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실제로 부모는 성년례에서 배제가 되거나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고유한 역할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된다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인식의 환기와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성년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의례에 참석해 자녀의 성년 됨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준다면, 성년대상자는 자신의 성장을 가족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모두 인정받는 느낌을 갖게 되어 보다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성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본래 전통 관례에서 주관자가 되는 관빈이나 계빈은 성년자의 성장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부모의 지인이나 친지 어른들이었다. 따라서 머리에 관을

---

65) 송정애 외, 가족과 생활문화, 양서원, pp.76-77.

66) 이기숙 외, 가족과 문화, 창지사, 2014, p.54.

씻우거나 비너를 씻아주고 술을 내리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온전히 성년대상자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축하를 하는 의식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 가운데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년례는 학교의 장(長), 교수, 교사 혹은 강사들이 부모, 관빈·계빈 그리고 진행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교내에서 의식을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주최 기관이 의례의 진행을 별도의 사회 단체에 위임을 해 의식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실제 성년대상자와 의례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들 사이에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의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성년대상자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의식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년대상자들과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성향에 부합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형식의 성년례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3. 성년례의 개선 방향 및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 1) 현행 성년례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갑오경장 이후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부딪쳐 사라져 가던 성년례를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시켰지만 좀 더 성년례의 본질적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교육과 함께 종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 이승원(2006)은 성년식을 위해 일정 기간 준비하는 사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부모는 물론 학교 등의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종교기관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성년대상자들이 성년식을 치르기 전 일정 기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인생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실의 공교육은 ‘인간의 마음’의 문  
제까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바람직한 인생관 형성에 종교교육이 긍정적  
으로 기여할 것이라 지적하면서 종교단체나 종교교육 기관들이 성년례와 관련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면 실질적인 성년례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sup>67)</sup>

둘째, 성년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도 있  
었다. 주영애(2010)는 성년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성년례  
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본인이 성년례를 경험하지 못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의미와 필요성, 형식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어머니들의 연령이 낮을수  
록 성년례가 근래에 와서야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긴 문화로 이해하고 있는 바  
가 있으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으로 성년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를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성년례 참가를 유도해 자녀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는  
통과의례의 과정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셋째, 가족과 친지가 함께하는 개별 성년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이기숙 등(2014)은 첫돌, 입학식, 졸업식, 성년식, 결혼식 등은 성  
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사마다 가족이 정서적·신체적·영적으로 어떻게 접  
촉하는가에 따라 가족의 성격과 유대감이 정해지고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런  
순간들에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가족이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 가족의  
내면은 결속력이 증가하며, 이런 가족생활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된  
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깨달아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하였다.<sup>68)</sup>

## 2) 현행 성년례의 개선 모형에 관한 연구

67) 이승원,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 진리논단 13, 2005, pp.271-272.

68) 이기숙 외, 가족과 문화, 창지사, 2014, p.90.

현행 성년례를 개선하는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순진(2004)은 개별 성년례, 집단 성년례, 그리고 소그룹 성년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개별 성년례는 전통지향형, 현대형, 종교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의 가풍과 취향 그리고 종교에 따라 형식과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집단 성년례에서는 주례자가 참가자 모두에게 직접 모든 절차를 관장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성년례 참가 인원을 조절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행과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별 성년례와 집단 성년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년대상자와 부모의 종교 및 기타 사회적 유대관계의 소그룹을 7명 내외로 구성하는 모형이 성년례를 확대 보급하고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언급하였다.<sup>69)</sup>

신상구(2010)는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경주의 옛길 신문왕로에서 성년례와 그 이전에 성년의 의미를 자각할 수 있는 통과의례를 함께 거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옥대와 만파식적을 얻기 위해 신문왕이 걸어갔던 길을 걷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체화 시켜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년례 프로그램 속에 분리, 조정, 재생, 통합의 4가지 과정을 넣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찾아가는 자아의 길, 더불어 가는 상생의 길, 선무도를 통한 수양의 길, 세신을 통한 재생의 터, 성인 탄생의 단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심과 흥미,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여 의식과 놀이가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70)</sup>

최성희(2012)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성년례의 모형을 개발하여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행 후 인식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논

69) 김순진,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51-55.

70) 신상구,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2, 2010, p.93.

의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체 성년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성년선언에 대한 ‘성년례필증’을 격식있게 갖추어 성년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자관자례(字冠子禮)의 절차를 ‘호(號) 부여하기’로 대신하여 부모가 호를 작명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sup>71)</sup>

김은희(2014)는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으로 ‘갓쓰고 비녀꽂고’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에 참석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각 문화원이나 예절원, 향교나 서원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생일날 성년례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72)</sup>

김한숙(2015)은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년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전통 성년례를 기본으로 가관례에서 성년대상자를 20명씩 무대 위로 올려 모든 구성원이 성년례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참여하는 집단 성년례가 되도록 했다. 또한 부모가 관례나 계례 시, 예복을 입혀주고 관을 씌우거나 비녀를 꽂는 의식을 집사와 함께 거행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이 적극적으로 의식에 참여할 것을 제시하였다.<sup>73)</sup>

박태순(2018)은 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년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모 대상 가족 중심의 개별 성년례 교육콘텐츠를 제안하였다. 부모들에게 성년례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부모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제공하며 성년례 교육 실천을 통한 자녀와 부모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sup>74)</sup>

최배영(2016)은 청년기의 학생들이 내면적으로 성인의 성숙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

71) 최성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97.

72) 김은희, 한국 전통성년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214.

73) 김한숙, 전통 성년례의 현대적 적용방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69.

74) 박태순, 부모대상 가족중심의 개별 성년례 교육콘텐츠 개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77.

성품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의(士儀)』 성인편, 관례의 내용을 토대로 성년례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성년례를 위한 준비과정을 두어 대학내 학과별로 신입생 40명에 대한 주최자(주인:부모)의 역할은 학과장이 담당하고, 3월 개강부터 10명씩 그룹을 만들어 학과의 교강사가 멘토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며 5월 성년례 행사에서는 주관자(관빈)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년례 당일에는 학과 조교가 사회자(빈)로 진행을 맡고, 학과 선배들이 보조적인 역할(찬자)을 수행해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배려,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sup>7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성년대상자가 성년 됨의 참된 의미를 자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성년례를 준비하는 사전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모두 강조하였다. 이는 성년이 되는 당사자들의 내면적 변화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안을 두는 측면이다. 또한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성년례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시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기존 성년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시행되는 모형들이 꾸준히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성년대상자, 부모, 성년례 의식의 주최 기관, 주관자 사이에 이해와 소통 그리고 공감의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성년례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

75) 최배영, 「사의」 성인편을 토대로한 대학의 청년기 인성교육 연구, 차문화·산업학 32, 2016, p.33.

## IV.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 1.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구성의 토대

#### 1)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 (1) 성년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본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와 실행 계획에 대해 설명한 후에 성년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이나 계기를 만들어서 알려준다면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존감도 생길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그런 기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아 참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면접대상자2)

만 19세가 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술 먹는 건데,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성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3까지 공부만 하다가 20살 되어서 술도 살 수 있게 되고 아무 데서나 술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갑자기 성인이 된 느낌인 거지. 성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게 좋기만 하지 얼마나 어

려운 건지 모르는 거야. (면접대상자1)

만 19세면 나이만 먹었지, 성인이라기보다는 연장된 청소년이잖아요, 미성년은 미성숙해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지만, 성년이 되면 성년으로서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의미, 꿈을 갖는 의미, 내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커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성숙한 어른도 많으니까. (면접대상자3)

위와 같이, 면접대상자들은 성년대상자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알려주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년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 (2) 성년대상자 사전교육의 의의에 대한 견해

성년대상자들에게 성년례를 앞두고 사전교육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의에 대해 질문한 결과,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 성년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대체적으로 사전교육 없이 그냥 성년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년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된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박 3일 합숙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본인이 성년례를 치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치를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면접대상자6)

또한 면접대상자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성년 됨을 준비하는 마음공부가 이루어

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인성교육의 계기가 되는 측면도 갖게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년례를 지자체 같은 곳에서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종교단체에서 움직여 주는 걸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다 보니 협력도 잘 될 것 같고요. (면접대상자6)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는 인성교육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찰에서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충분히 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부처님 말씀 통해서 사유를 하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관하고 지켜보면서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대상자1)

성년이 되면 내가 왜 대학에 가고, 왜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가, 깊은 철학은 아니더라도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그런 고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죠. 불교는 마음이 중심이고 일반사회는 물질주의적이고 조건 중심적이잖아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일반사회와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성년례를 하면서 그걸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대상자3)

또한 성년대상자에게 불교의 교리가 갖는 교육의 측면으로 어떤 의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단 수계식 때 수지(受持)하는 오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불살생(不殺生)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불음주(不飲酒)를 통해 자신의 소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측면을 깨닫는 것에 관해서도 언급되었다.

대승보살의 개념이죠. 얼마나 더 남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인생을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지 배워야죠. 그동안은 부모님께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버지는 뭐가 힘들겠구나, 어머니는 뭐가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거죠... 또, 불교의 연기법이에요. 불교는 모두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계속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미성숙 상태로 머무르는 거죠.(면접대상자3)

부처님의 일대기인 팔상성도를 통해 교훈을 줄 수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단과 용기를 배우고, 또 끝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교훈을 배우고, 전 생애를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 바친 부처님의 삶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죠. (면접대상자2)

이를 보면 대승보살의 개념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슬픔처럼 여기는 마음을 갖고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찰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런 뒤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또 올바른 생각을 한 뒤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통해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불이적(不二的)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성년대상자를 위한 사전교육의 의의에 있어 성찰 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성년대상자 사전교육 내용에 대한 견해

성년례를 앞둔 대상자를 위한 사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질문한

결과, 성교육(면접대상자1)과 치유의 시간(면접대상자3)에 대한 견해가 나타났다.

우리 아이들이 연애도 잘해야 하는데 연애라는 게 남자와 여자관계 이런 것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성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지. 연애를 잘하려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해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 여기면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면 누가 그런 나를 바로 봐주며, 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주고받고, 서로 양보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나에게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성 관계도 잘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연애교육이 거창한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하니까, 그게 결국은 성교육과 연결되는 거라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년례를 듣고 보니 더욱 중요하구나 생각되네요. (면접대상자1)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고마웠던 일, 미안했던 일. 이걸 치유의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참 많아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미성숙함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면아이가 어릴 때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그 분노를 갖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그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아픔과 상처의 핵심이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해요. (면접대상자3)

또한 성년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조언이 있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자유롭고, 그렇지 못하고 남의 생각에 휘둘리면 마음이 힘들어지므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견해였다.

내가 공부를 잘 한다 못한다,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 입력된 것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창조적인 상상력이 억눌려 있

는 거죠. 입력된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의 조건일 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마음의 차원이 달라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 정체성이 외적 조건과 동일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은 전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직장이 어딘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는 묻지 않죠. 불교는 반대로 무슨 일을 하던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불교에서는 길모습의 기준으로 행복한 거라 보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면접대상자3)

이와 더불어 성년대상자가 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갖도록 일깨워주는 교육 내용에 대한 견해도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이죠. 왜 살아야 하나, 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야 하나, 이런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부모세대의 물질주의적인 사회가치관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 이런 가치 기준이 고민과 비판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답습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이런 이유가 단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또는 결혼의 조건으로 좋으니까 라는 이유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떤 것이 좋은 결혼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직장생활인지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연봉 높은 직장을 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면접대상자3)

인공지능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가 공감능력인데, 인간의 공감능력은 무한해요. 불교는 인드라마이라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전 우주가 한 숲에 한

나무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본성으로 들어가면 원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뿌리가 단절된 각각의 나무로 보면서 공감하라고 하니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건 약간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가 창조적인 상상력인데,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를 말해요. 빅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우주와 하나니까 끊임없이 진화하고 의식이 무한하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무한한 공감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무한한 창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대기업, 안정적인 가정, 이런 걸 추구하더라도 이런 개념을 알고 추구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면접대상자1)

이외에도 성년대상자를 위한 사전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모님과 어른에 대한 예절과 전통에 대한 교육(면접대상자4·5), 음주의 예, 나의 정체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면접대상자6) 등이 언급되었다.

#### (4) 성년례 프로그램의 형식 구성에 대한 견해

다음으로 성년례 프로그램의 형식 구성으로 수계식과의 접목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면접대상자1은 수계식을 성년례에 접목시키는 형식이 좀 억지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2박 3일간의 교육을 시행하고 그 후에 성년식으로 방점을 찍고자 한다는 본 연구자의 설명을 듣자 면접대상자1은 성년례에서 어른이 성년대상자에게 술을 내리며 음주의 예를 가르쳐주는 초례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술을 사가지고 뒷골목이나 지하같이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술을

마셨지만 모이는 장소가 그렇다 보니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을 벌이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례에서 어른이 의식을 통해서 이것도 ‘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절에서 그걸 먹었다고 애들이 그다음부터 술을 찾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미인 거지... 애들이 술을 마시는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데 드라마에서 술을 제대로 마시는 일이 없잖아요, 술 마시고 주정하고 아주 못된 것만 보고 배우기 때문에 모델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어른한테 술을 배웠다고 하는 걸 알려주면 아이들도 술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면접대상자1)

나아가 사찰에서의 수행과 의식을 성년례에 접목함에 있어 자기 극복을 위한 과정, 성년대상자의 선서, 술의 의례, 범명, 부모의 참석에 관한 견해도 언급되었다.

자기 극복을 위한 어려움도 한두 가지는 넘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 한 시간 정도 산행을 한다던가... 108배가 아이들에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공간이 주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얻은 것보다 좀 힘들게 얻은 것을 나중에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힘들게 했을 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성년례에서 성년자들이 대표로 선정되는 성년자 외에는 모든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석할 수가 없어 들러리가 되는 느낌을 갖는 일이 많고,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10명이든 100명이든 부모님이 참석하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성년자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거든요... 성년례 의식 중에 본인이 선서하는 것, 술의 의례, 범명, 이 세 가지가 성년대상자들이 가장 의미있게 생각했던 내용이라 의식에 포함되면 좋겠어요.(면접대상자6)

이와 더불어 모든 절차가 복잡해서는 안 되며 단순화시켜야 하고, 현시대에

부합되는 용어를 사용해 성년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해야 함 (면접대상자6)을 강조하였다.

한편 다음의 <표 IV-1>는 면접대상자들이 언급한 성년례의 기본 형식 구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면접대상자들은 사전교육과 성년례를 이어서 하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2박 3일의 프로그램 기간에 대해서는 성년대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다소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취지와 이끌어가는 방식을 보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대상으로는 수능을 마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청년들을 뽑았다. 참여 인원은 2명부터 50명까지로 다양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조별 활동을 하는 경우 30명에서 5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찰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일부에서는 타 종교인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것 같다는 견해도 있었다.

주례자로는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 평소에 접하는 스승, 지역의 유지, 사찰의 주지스님 등이 언급되었지만 무엇보다 성년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례자로 의견이 모아졌다. 복식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한복이나 단정한 복장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고, 종교계 전문가들은 전통복식이나 모자 등을 언급했다.

초례에 대해서는 사찰이라는 장소를 감안하여 술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차로 대신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마지막으로 범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범명을 원치 않는 성년대상자에게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명을 지어 오게 하는 방법, 타종교의 세례명을 그대로 다시 내리는 방법, 불자가 아니더라도 범명을 주어 그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방법 등의 견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새로운 이름을 내려주는 점에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

〈표 IV-1〉 성년례 프로그램의 기본 형식 구성에 대한 견해

구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 구성	성년례 프로그램의 구성으로는 사전교육과 성년례를, 이어서 하는 형식에 대해 면접대상자 모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고 봄.
프로그램 기간	성년례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2박 3일은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짧은 감이 있다고 보는 의견(면접대상자4)과 반대로 성년자들에게 2박 3일의 기간이 좀 긴듯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면접대상자5)을 보임
프로그램 대상	성년례의 대상으로는 성년을 맞이하는 사람(면접대상자5), 긴장이 풀어져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수능을 마친 고3(면접대상자4), 수능 마친 고3이나 대학 1학년생(면접대상자6)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타남. 이로 보면 면접대상자 대부분이 만19세 이상을 프로그램의 성년대상자로 꼽음. 또한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고등학생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면접대상자1)고 봄.
프로그램 참여 성년대상자 인원수	프로그램 참여 성년대상자의 인원수로는 조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30-50명이 좋겠다고 봄. 또한 2명이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접대상자2), 5-10명으로 너무 대중적이지 않아야 한다(면접대상자4), 10-20명이 적당할 것 같다(면접대상자5)는 의견도 있음.
프로그램 장소	성년례 프로그램의 장소에 있어 사찰이 타 종교인에게는 약간의 거리감은 있을 것 같지만 주관하는 곳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접대상자5)는 의견이 있고, 다른 면접대상자들은 종교적인 장소라면 어디든 좋지만 가능하면 사찰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냄.
프로그램 주례자	프로그램을 접수할 때 성년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조사해 주례자로 하면 좋겠다(면접대상자1), 주관하는 곳에서 판단해서 정하는 것이 좋

	<p>겠다(면접대상자4), 평소에 접하는 스승이나 지도자가 친근감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면접대상자5), 지역의 유지로 인지도가 있는 분으로 예나 지금이나 덕망이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흥미 있고 쉽게 설명하는 주례사였으면 좋겠다(면접대상자6), 사찰의 주지스님이 좋겠다(면접대상자2)는 의견을 보임.</p>
<p>프로그램 에서 성년대상자 복식</p>	<p>상황에 따라 해야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면접대상자6), 성년이 되는 의미가 부각 되는 면에서 전통복식을 제시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양복만 제시하면 전통성이 없어질 것 같아 고민이 된다. 따라서 자유롭게 한복과 양복 정장 중 선택해서 입고 의식 때도 복식에 맞춰 자리를 배정한다(면접대상자4), 속에 입는 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겉으로 갖춰 입을 수 있는 포 종류로 한다(면접대상자5), 머리에 쓰는 조바위같은 쓰개를 예쁘게 씌우면 좋겠다(면접대상자3)고 언급됨.</p>
<p>프로그램 에서의 초례</p>	<p>초례는 술로 해야 한다(면접대상자1,6)는 의견과 다례로 하면 좋겠다(면접대상자2,5)는 의견이 있음.</p>
<p>프로그램을 통한 성년대상자 법명</p>	<p>불자가 아닌 사람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명을 지어오게 하여 그 이름을 내리면 좋겠다(면접대상자5), 세례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주는 방식이 좋겠다(면접대상자4), 꼭 불자가 아니라도 법명으로 받은 한자를 풀이해 주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라는 설명을 해준다(면접대상자3), 법명이나 호(號)를 꼭 주었으면 좋겠다(면접대상자6)고 견해를 밝힘.</p>

#### (5) 부모 대상 교육에 대한 견해

성년대상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함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사회에서 나를 성인으로 봐주는 것과 부모님이 성인으로 봐주는 것은 다르죠. 진짜는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성인으로 믿어주고 성인으로 대우해 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교육이 필요해요.(면접대상자1)

오늘날 성년대상자들이 성년례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통과 의례에 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이런 현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면접대상자4)

지금 성년례의 존재조차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지요.(면접대상자5)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을 보였다.

통과의례마다 그 의례에 담긴 의미를 알려주고 특히 관계례를 치르는, 부모의 품 안에서 독립하는 시기인 그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기관에서 성년례를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년례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면접대상자4)

성년례에 대한 의미는 당연하고 성년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행동거지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예절교육이 필요하지요. 예전에는 가정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교육을 받은 부모가 별로 없으니까. 자식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알아야겠지요.(면접대상자5)

이와 더불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적절한 형식에 대한 견해가 언급

되었다.

개념적인 이야기는 강의로 해줘야겠지, 그리고 경험담이나 앞으로 희망하는 것 등은 토론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의례의 중요한 몇 가지는 실습해 보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전통적인 의식보다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현대적인 재해석을 해서 현대에 맞게 어떻게 풀어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면접대상자4)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토론 형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절이라는 게 절을 하나 배우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면접대상자5)

형식은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PPT를 통해 20분 정도 강의하고, 현대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15분 정도, 그 뒤에는 부모님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지요.(면접대상자6)

## 2) 성년대상자 사전교육을 위한 성찰 수행

앞에서 면접대상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년례를 앞둔 사전교육에 있어 성년대상자의 성찰 수행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이에 현재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찰을 위한 수행 가운데 성년대상자 사전교육에 부합되는 수행방법과 수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전교육을 위한 성찰의 수행방법

#### ① 108배

백팔배란 불교의 예법에 따라 절을 108번(그림 IV-1) 하는 것으로, 절은 법당에서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대한 예경(禮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작이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수행방법이다.<sup>76)</sup> 절은 동양 문화권 어느 곳이나 있지만 불교에서는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 이렇게 다섯 부분을 땅에 붙이고 양손으로는 상대방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오체투지(五體投地)라고 한다. 자신의 이마를 존경하는 대상의 발밑에 대고 양손으로 공경하는 것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하심(下心)의 표현이기도 하다. 존경은 물론 귀의(歸依)와 찬탄(讚嘆: 칭찬과 감탄)을 표하는 예절이 기도와 수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절을 할 때 상대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삼독심(三毒心: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순일해져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게 되는 것이다.<sup>77)</sup> 결코 대상에 대한 숭배나 기복의 행위가 아니라 육체를 통해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번뇌의 뿌리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108배를 일러 ‘몸과 마음의 대화’ 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sup>78)</sup> 수행자들은 보통 108배를 하면서 참회를 하고 나아가 자신의 주위에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108감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108배를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마음속의 번뇌를 정화시키고 온갖 잡념을 지울 수 있다. 그래서 108배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삶 자체를 바꿔주는 훌륭한 수행법이다.

76)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1, p.21.

7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1, pp.196-197.

78) 이숙현, 불교수행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8.



<그림 IV-1> 법당에서의 108배

출처:<https://whiteconsumer.tistory.com/229>

## ② 새벽 예불

예불(禮佛)은 아침저녁 웃어른께 문안 인사를 드리듯이, 법당에서 아침저녁 부처님께 공경의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의식이다. 보통 예불은 하루 세 번 진행되는데, 새벽 예불은 오전 3시에서 4시쯤 도량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 도량석(道場釋)을 시작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잠들어 있는 천지만물을 깨우기 위해 스님은 천천히 목탁을 두드리고 염불하며 사찰 곳곳을 돈다. 도량석이 울려 퍼지면 스님과 재가자들은 예불에 참석할 준비를 한다. 목탁 소리가 잦아들면 <그림 IV-2>와 같은 사물(四物:법고·범종·목어·운판)이 그 소리를 이어받아 울리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범종이 삼계(三界:욕계·색계·무색계)에 속하는 28천계(天界)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법음을 28번 울린다. 그리고 나무를 잉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목어와 청동으로 만든 구름 모양의 운판까지 울려 퍼지면 법당의 예불이 시작된다. 사물의식은 그 소리를 듣고 땅에 있는 중생, 날아다니는 중생, 물속에 사는 중생,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는 것이다.<sup>79)</sup> 이와 같은 법당의 새벽예불은 고요함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의식을 치르게 된다.

79) 남궁선,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운주사, 2013, p.156.



<그림 IV-2> 사찰의 사물(四物)

출처:[http://www.bulkyoilbo.co.kr/bbs/board.php?bo\\_table=sachal&wr\\_id=334](http://www.bulkyoilbo.co.kr/bbs/board.php?bo_table=sachal&wr_id=334)

### ③ 명상과 참선

참선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참선 중에서도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看話禪)<sup>80)</sup>을 핵심 수행법으로 삼고 있다.<sup>81)</sup> ‘위빠사나’ 명상은 초기 불교 수행의 원형적인 모습을 간직한 남방 상좌부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빠사나(vipassna)에서 위(vi)란 분리하다, 쪼개다, 관통하다 라는 의미이며, 빠사나(passna)는 관찰, 식별, 봄을 의미한다. 위빠사나의 어원적 의미를 번역하면 꿰뚫어 봄, 즉 통찰을 뜻한다.<sup>82)</sup>

위빠사나는 있는 그대로를 관찰, 자각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현상을 사실대로 수용하고 중국에는 그것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지킴을 통해 알아차림을 행해나가는 위빠사나의 관찰대상은 몸(身), 느낌(愛), 마음상태(心), 현상(法)이며 이러한 수행법을 사념처(四念處)라고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위빠사나를 행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가능하고 궁극의 목적인

80) 간화선은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여 차례차례 깊이 관찰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들고 단박에 마음의 본바탕으로 들어가는 수행이다(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1, p.215).

8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1, p.213.

8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1, pp.206-207.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sup>83)</sup>

선은 한자 ‘禪’으로 표기하지만 한국에서는 ‘선’으로, 중국에서는 ‘찬’으로, 일본에서는 ‘젠’으로 읽고 있다.<sup>84)</sup> 선은 혼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선정(禪定)의 의미를 지칭하지만 단순히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혜쌍수(定慧雙修)와 같이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말한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적적하다는 성성적적(惺惺寂寂)의 상태에서 마음 바닥으로 들어가 그 깨끗한 본성인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구하는 수행인 것이다<sup>85)</sup>. 참선의 방법은 가부좌로 앉아서 하는 좌선, 호흡에 맞추어 걸으면서 하는 행선(行禪) 등이 있다.

#### ④ 다도

불가에서 차를 수행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깍다거(喫茶去)’라는 조주(趙州, 778-897)선사의 공안(公案)에서 비롯되었다. 조주선사에게 수행자 두 사람이 찾아와 절을 올리고 불법의 큰 의미를 물었을 때 조주선사는 대답 없이 이곳에 온 일이 있는가를 되물었다. 수행자가 한 번도 없다고 하자 조주선사는 “그러면 차나 한 잔 들고 가시게 [ 깍다거 ].” 라고 말했다. 곁에 있던 또 다른 수행자가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큰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조주선사는 그에게도 똑같이 이곳에 온 일이 있는가를 되물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예, 한 번 있습니다.” 라고 하자 조주선사는 다시금 “그러면 차나 한 잔 들고 가시게 [ 깍다거 ].” 라고 말하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원주(院主) 스님이 “스님, 어째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이나,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차나 한 잔 들고 가시게’ 라고 말씀하십니

83) 임승택, 위빠사나란 무엇인가, 불교포커스, 2009, 09, 08

<http://m.bu: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07>

84)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1, p.205.

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선,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8362>

까?” 라고 묻자 조주 선사는 원주를 조용히 바라보며 “원주, 자네도 차나 한 잔 들고 가시게 [ 깍다거 ].” 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깨달음은 심오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일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음을 말한다. 차를 마시는 일상이 곧 선(禪)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주선사의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다(茶)와 선(禪) 혹은 선(禪)과 다(茶)가 둘이 아닌 경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조주의 깍다거(喫茶去) 공안(公案)이다.<sup>86)</sup>

중국에서 전래 된 차와 선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정의되는 부분은 ‘차’ 와 ‘선’ 의 경지를 같이 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고려 시대 이규보가 “한 잔의 차가 곧 참선의 시작” 이라고 한 이후로 다선일미라는 단어는 오늘날까지 차와 선의 관계에 있어 동의어가 되고 있다. 다선일미는 차와 선은 같다는 뜻으로 차를 통해서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혹은 차의 경지가 선과 같다는 의미이다.<sup>87)</sup>

다도는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정신을 닦는 것이다. 귀로는 물 끓이는 소리를, 눈으로는 찻잔 안의 차의 빛깔을, 코로는 차 향기를, 입으로는 차의 맛을, 손으로는 찻잔을 통한 따뜻한 감촉을 느끼면서, 오감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은 끼어들 틈이 없다.<sup>88)</sup> 하지만 누군가와 의 즐거운 자리를 만들고, 맛있는 차를 우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활 속 다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sup>89)</sup> 다음의 <그림 IV-3>은 스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차담의 모습이다.

86) 김경숙, 조주의 다선일여 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

87) 이진미, 다도가 선에 미치는 영향, 차문화·산업학 44, 2019, p.89.

88) 남궁선,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운주사, 2013, p.162.

89) 주영애 외, 세계의 차문화,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p.98.



<그림 IV-3> 스님과의 차담(茶談)

출처:[http://www.baekryunsa.net/ab-1153-2?pc=p&PB\\_1479205419=3](http://www.baekryunsa.net/ab-1153-2?pc=p&PB_1479205419=3)

### ⑤ 울력

중국 당나라 때 백장선사는 90세에도 대중들처럼 일을 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제자가 스승의 노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농기구를 감춰다. 백장은 일을 하지 못하자 하루를 굶었고, 제자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이라고 답했다. 수행은 일상생활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행위가 수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관이다.<sup>90)</sup> 절에서의 ‘울력’은 직위나 출가한 나이(승랍 또는 법랍)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한다. 이는 공동 노동으로 사찰의 일상사 중 하나이다.<sup>91)</sup>

사찰에 가면 아침 공양 전후로 스님과 재가자들이 함께 마당을 쓸거나 도량을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울력 수행을 하는 것이다. 밭에 나가 김을 매고 거름을 주거나, 장과 김치를 담그고 건물을 고치거나 쌓인 눈을 치

90) 남궁선,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운주사, 2013, pp.161-162.

91) 남궁선,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운주사, 2013, p.161.

우는 등 함께 모여 일하는 모든 것이 곧 울력이다. 울력은 본래 여러 사람이  
기를 모으거나 힘을 구름처럼 모은다는 뜻에서 울력(雲力) 또는 운력(運力)이  
라고 한다.<sup>92)</sup>



<그림 IV-4> 사찰의 울력

출처:[https://www.templestay.com/temple\\_info\\_gallery\\_view.asp?idx=3447&page=21&t\\_id=baekryunsa](https://www.templestay.com/temple_info_gallery_view.asp?idx=3447&page=21&t_id=baekryunsa)

#### ⑥ 공양

사찰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한다. 공양하기 전에 반드시 합장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한 다음에 먹는다. 먹을 양만큼 적당히 가져다 먹고, 음식물  
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맛을 음미하거나 식탐을 부리면 안 되고,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공양을 마친 뒤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 인사를 해야 한  
다.<sup>93)</sup>

사찰의 식재료로는 육류와 오신채(五辛菜)가 사용되지 않는다. 육식은 살생  
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오신채는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날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사찰에서는  
식생활도 수행으로 생각한다.

92) 이경민, 울력운력, 불교신문 3185호, 2016-03-16,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438>

93) 남궁선,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운주사, 2013, p.33.

사찰의 식사법에 발우공양(그림 IV-5)이 있다. 발우라는 밥그릇을 사용하여 소리 없이, 남김없이 먹는 식사법으로 크기가 다른 네 개의 그릇이 한 벌을 이루어 크기대로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안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만들어져 하나의 세트가 된다. 발우공양의 과정은 단순히 식욕을 채우거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관계(五觀偈)<sup>94</sup>를 마쳐야 공양을 할 수 있으며, 식당 작법이라고 하여 수행의 하나이다.<sup>95</sup>



<그림 IV-5> 발우공양

출처:<http://www.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

## (2) 사전교육을 위한 성찰의 수행과정

석가모니가 범인(凡人)에서 성인(聖人)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찰과 고뇌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다. 고뇌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고뇌하기 전의 삶이 부모의 뜻에 따르는 종속적인 것이었다면, 고뇌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의 삶은 자신의 주체적인 것에 해당

94) 불교에서 발우공양 때나 식당작법(식당작법)의 의례를 행할 때 독송하는 계송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①계공다소양피내처(計功多少量彼來處): 이 식사가 있기까지 공이 얼마나 든 것인가를 생각한다. ②촌기덕행전결응공(村己德行全缺應供): 자기의 덕행이 이 공양을 받을 만한 것인가를 생각한다. ③방심이과탐등위중(防心離過貪等爲宗): 마음을 지키고 허물을 여의는 데는 삼독(三毒)을 없애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음을 관한다. ④정사양약위료형고(正思良藥爲療形枯): 밥 먹는 것을 약으로 여겨 몸의 여힘을 방지하는 것으로 죽하다는 것을 관한다. ⑤위성도업(爲成道業應受此食): 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공양을 받는 것임을 관한다.

95) 남궁선,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운주사, 2013, pp.165-168.

하여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어른 되기’의 담론, 즉 어른이 되어야만 결혼을 하고, 결혼함으로써 어른으로 보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른이 물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끌어어나가는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적 어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96)</sup>

동남아 상좌부 불교국가인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에서의 득도식은 이런 석가모니 붓다의 출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자 시절 세속의 부귀와 보장된 왕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인생의 참 의미와 진리를 찾아 구도의 길을 떠난 부처님처럼 자신들도 그와 같은 성찰의 길을 따르는 것에 출가식인 득도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97)</sup>

‘자기성찰’은 대상을 통하여 자기를 이해하는 일종의 사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상의 의미를 탐색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전향하는 의식 활동을 뜻한다.<sup>98)</sup> 다시 말해 자기성찰은 단순한 의식의 인식작용과 더불어 대상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전체적인 존재를 돌이켜 보는 것이다. 이는 주체의 자기 이해와 대상의 의미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성찰은 지식 습득보다는 의식을 창조하고 재구성하는 지식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99)</sup>

일반적으로 청년기 대학생에게는 대학 생활과 학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책임질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함한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부모나 교사로 부터 관리되던 초·중·고 시기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거쳐 대학에 입학한

96) 구미래,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민족사, 2012, p.149.

97) 정기선,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8.

98) 황정현·남상준, 자기성찰의 사회과교육적 실천방안, 한국교육대학교 초등학교연구소 학술저널, 2012, p.37.

99) 황정현, 남상준, 자기성찰의 사회과교육적 실천방안, 한국교육대학교 초등학교연구소 학술저널, 2012, p.6

새내기들은 청소년기의 삶과 비교해 대학 생활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대학 생활과 함께 주어지는 책임감과, 학업을 비롯한 교수,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함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대학 새내기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되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대학 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도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sup>100)</sup>

청년기에 있는 성인대상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면 살아가면서 수시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며, 모든 일에 있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임하게 됨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sup>101)</sup>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성년례에 앞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참선을 통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심신의 표현을 느껴보고, 108배를 하면서 절할 때마다 들리는 구절에 참회와 반성 그리고 다짐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또한 사찰 울력과 공양을 통해 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움이 되었던 헤아려보지 못한 공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본다. 또한 다도를 통해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면서 그동안은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면 이 순간은 온전히 느껴지는 몸과 마음을 헤아려본다. 이런 수행과정을 통해 나의 근본을 찾는 작업과 함께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실천으로 함께 살아가는 운명공동체로서의 나를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불자로서의 출생의식인 수계식과의 접목을 통해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년례를 치름으

100) 주영애 외, 여대생의 자존감, 자기인식,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영향, 여성연구논총 17, 2015, pp.70-71.

101) 송외순, 자기성찰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

로써 의식의 뜻에 맞게 성인으로서 각오를 다지도록 한다.

## 2.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구성안

### 1) 프로그램의 목적

만 19세의 나이에 이르면 의식을 통해 성인이 됨을 인정해주는 성년례는 오늘날 많은 곳에서 치러지고 있지만, 성년례의 의미와 가치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성년례를 위한 사전교육의 기회는 부족하고, 사전교육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주입식 교육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데 급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년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성년대상자들에게 성년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둘째, 성년대상자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함양을 강화한다. 셋째, 성년대상자들이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좀 더 안정된 정서로 성인기를 맞을 수 있도록 이끈다. 넷째, 성년대상자들이 이웃과 더불어 배려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주도록 함에 있다.

### 2) 프로그램의 대상 및 구성 개관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그리고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성년례 프로그램은 2

박 3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현재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물(四物)이 갖춰진 사찰에서의 ‘성찰교육’과 선원에서의 ‘성년수계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적용의 성년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들 30명으로 아직 미성숙의 단계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심리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성년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관자는 사찰의 주지스님과 청년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표 IV-2〉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개관

구분	성년대상자		부모
기간 / 형식	2박 3일 동안 ‘성찰교육’과 ‘성년수계식’을 이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3일(총 15시간)의 프로그램
대상 / 인원	만 19세 이상의 연령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 30명 내외		성년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부모
장소	성찰교육 프로그램	사찰	선원
	성년수계식 프로그램	선원	
프로그램 주관자	사찰의 주지스님, 청년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전문가		선원의 스님, 의례 및 복식 전문가

반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성년자들이 성찰교육에 들어간 날부터 성년수계식이 있는 날까지 3일간 총 15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부모교육의 장소는 선원이며, 프로그램 주관은 선원의 스님과 의례 및 복식 전문가가 담당한다.

### 3)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

#### (1) 성년대상자를 위한 성찰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성년례가 이행되기 전 성년이 되는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존감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며 성년식에 임해 스스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2박 3일 동안의 성년대상자를 위한 성찰교육 프로그램은 <표 IV-3>과 같이 진행된다.

성년대상자는 주관하는 선원에서 출발하여 성찰교육을 위한 장소인, 사물이 갖춰진 넓은 사찰로 이동한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 사찰에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성년으로서의 준비교육과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셋째 날이 되면 오전에 교육을 마치고 선원으로 돌아와, 불교에서의 출생의식인 수계식으로 성년례를 치르는 성년수계식에 임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첫째 날에는 사찰에 도착하면 숙소를 배정하고 사찰예절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지고 조를 편성한다. ‘어찌다 성인’ 시간은 조별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죽음’이나 ‘사랑’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해 각자가 써낸 궁금한 내용들, 예를 들면 ‘사람은 왜 죽나요?’, ‘나는 왜 태어났나요?’,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나요?’ 등의 질문중 조별로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해 토론하고 큰 종이에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 과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을 기른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내 마음을 알아줘’ 시간에는 인생그래프를 그려본다. 이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그래프에

긍정과 부정의 마음으로 표시하여 그동안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핌으로써 자기 마음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다. 흰 종이에 수평선을 긋고 그 위에 나이를 표시하고 그 시기에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면 수평선 위에 점을 찍고, 그 시기에 부정적인 마음이었다면 수평선 아래에 점을 찍어 그 점들을 선으로 이으면 그래프가 완성된다. 자신의 그래프에 대해 각자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만나보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아침 공양을 마치고 울력에 들어간다. 가볍게는 사찰의 마당을 쓸거나 그 계절에 수확하는 작물을 캐서 사찰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예불을 마치고 나서 성년례의 의미와 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걷기 명상 시간에는 내 몸의 동작과 발의 느낌을 느껴봄으로써 마음챙김과 깨어있음을 깨닫는다. 이 시간은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평온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다도 시간에는 스님과 차담(茶談)을 나누며 인생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은 저명한 멘토와의 시간으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이성관과 결혼관의 확립을 도모한다. 또한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자아성찰을 통한 정서적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그다음으로는 각자 종이 연꽃(그림 IV-6)을 만들며 잠시 휴식을 갖는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나를 안아줘’는 나의 내면아이를 만나는 시간이다. 면접대상자3의 견해에 의하면 내면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면에는 유아기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어린 시절 쌓인 열등감, 분노, 상처 등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며, 성인이 되어도 미성숙한 마음으로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상처받은 내면아리와 만나게 해주고,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편지를 쓰도록 하여 감사했던 일, 미안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그림 IV-6> 종이 연꽃 제작

출처: 연구자 소장

<표 IV-3> 성찰교육 프로그램

날짜	시간	내용
1일	15:00~16:00	사찰 도착/ 숙소배정
	16:00~18:00	‘어쩌다 성인’ (조편성)
	18:00~19:00	저녁공양
	19:00~21:00	‘내마음을 알아줘’(인생 그래프 그리기)
	21:00~21:30	취침준비/ 취침
2일	06:00~06:30	기상/ 세면
	06:30~07:30	아침공양
	07:30~08:30	울력
	08:30~09:00	예불
	09:00~11:00	교육 (성년례에 대한 이해 )
	11:00~12:00	견기명상
	12:00~13:00	점심공양
	13:00~15:00	다도
	15:00~17:00	강의 (성년의 자질)

	17:00~18:00	연꽃 만들기
	18:00~19:00	저녁공양
	19:00~21:00	‘나를 안아줘’ (참선을 통한 치유시간)
	21:00~21:30	취침준비/ 취침
3일	06:00~06:30	기상/ 세면
	06:30~07:30	아침공양
	07:30~08:00	예불
	08:00~09:00	‘나를 바꾸다’ (나를 바꾸는 108배)
	09:00~11:00	‘나를 만들다’ (발원문 쓰기)
	11:00~12:00	점심공양
	12:00~	방 정리/ 회향

셋째 날의 ‘나를 바꾸다’ 시간에는 법당에서 108배를 하면서 절할 때마다 스님이 읽어주는 문구의 뜻을 음미하고 미성숙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져본다. 힘들어하는 나를 느끼면서 적절하게 통제해보고 동기부여를 통해 인내심도 길러본다. ‘나를 만들다’ 시간에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성인이 되겠다는 발원문을 써서, 성년수계식에서 성년선서 대신 낭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년례의 주인공으로서 의미를 더하게 될 수 있다. 점심 공양이 끝나면 방을 정리한 후 회향(廻向:자기의 수행으로 닦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하고, 모두 함께 성년수계식을 위해 선원으로 돌아간다.

프로그램 가운데 사찰에서의 새벽 예불은, 온전히 성찰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면접대상자1에 의하면 잠이 모자란 성년대상자에게 새벽예불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없고 새벽 예불로 인해 성찰교육 중에 졸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강압적인 수행방법은 지양하였다. 또한 108배하는 중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 하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극

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부모 대상 교육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6시간, 마지막 날은 3시간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성년례를 포함한 통과례의 의미, 의례에 따른 예절, 청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역할, 성년대상자인 자녀에게 입혀줄 배자(그림 IV-7) 제작 등이다. 형식은 강의와 토론, 실습을 위주로 진행한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첫째, 자녀를 성년으로 인정하고 짐착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출가시킬 수 있도록 일깨움을 주도록 한다. 둘째, 성년대상자인 자녀가 의례 때 입을 배자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자녀의 신체적인 성장을 인지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여 심리적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성년대상자의 성찰교육 중 '나를 안아줘' 시간에 부모에게 쓴 편지를 영상으로 남겨, 사찰에서 성년수계식을 위해 자녀가 선원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선원에서 먼저 부모에게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소통을 돕고, 성년자의 부모로서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넷째, 선원으로 돌아온 성년대상자에게 직접 옷의 의식과 술의 의식을 치러주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림 IV-7> 성년대상자를 위한 배자  
출처: 연구자 소장

### (3) 성년수계식 프로그램

성년수계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용어는 성년대상자와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년대상자들이 사찰에서 선원으로 돌아오면 성년수계식을 진행한다.

성년수계식은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수계를 고하는 의식인 ‘거향찬’으로 시작을 한다. ‘청성’으로 삼보에 수계의 증명을 청한다. 성년대상자는 불·법·승 삼보에 삼배하고 부모에게 한번 절을 올린다. ‘청사’로 오계를 설명해줄 주지스님을 청한다.

<표 IV-4> 성년수계식 프로그램

절차	내용
1. 거향찬(擧香讚)	삼보에 수계를 고하는 의식을 함
2. 청성(淸聖)	수계의식을 증명할 삼보를 청함
3. 불·법·승에 삼배	부처님을 향해 삼배 올림

4. 부모님께 배	부모님을 향해 일배 올림
5. 청사(請師)	오계를 설해주실 주지스님을 청함
6. 성인오계	계를 지킬 것을 묻고 답함
7. 연비 의식	왼팔을 걷어 연비를 받음
8. 옷의 의식	부모님이 자녀에게 배자를 입혀줌
9. 술의 의식	부모님이 자녀에게 술을 내려줌
10. 수계자 발원문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발원문을 낭독하고 수계첩을 받음
11. 수계첩 수여	법명을 내려줌
12. 주례자 축사	성년선언과 더불어 축사를 함
13. 성년대상자 배	성년대상자 주례자를 향해 배
14. 합창단 축가	합창단의 축가
15. 폐식	의식종료

주지스님이 오계의 공덕과 의미를 일러주고 오계의 계율마다 ‘지킬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 성년대상자는 지키겠다고 대답한다. 성년대상자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아가 연비를 받는다.

옷의 의식에서는 성년대상자의 앞으로 부모가 나와서 준비된 배자를 입혀준다. 이는 성년으로 변화됨을 상징하는 의례이다. 술의 의식에서는 부모가 성년대상자에게 직접 술을 따라준다. 성년대상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술을 마신 후에 부모에게 절을 하면 부모도 답배를 한다.

성년대상자 한 사람씩 자신이 준비한 발원문을 낭독하며 수계첩을 받는다. 주례자가 성년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년선언과 함께 축사를 해준다. 성년대상자 모두가 주례자에게 절을 올린다. 끝으로 합창단이 축가를 불러준 후에 성년수계식을 마친다.

### 3.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오늘날 성년례는 지자체나 학교 등에서 5월 셋째 주간이 되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성년례가 성년대상자들의 내면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년례가 인생에 있어 필요한 의례로 성년대상자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게 하고자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사찰이나 선원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통한 인성교육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찰이나 선원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성년대상자들의 내면적 성숙을 도울 수 있도록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정례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각 사찰이나 선원에 소속되어있는 신도들의 자녀, 청년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프로그램을 시행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임을 일깨우고 불자로서의 소속감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찰이나 선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성년대상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성년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이해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성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초 UCC영상 공모전’을 시행하여 청년세대로 하여금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SNS 확산으로도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면접대상자1과 면접대상자2도 프로그램이 성년대상자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드시 성년대상자를 배려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면접대상자1)

성년례 의식 자체가... 이벤트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21세기형으로 바뀌긴 해야 할 것 같아요.(면접대상자2)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년의 의미나 성년례 장면을 주제로 담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UCC영상 공모전은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완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공동기획자로 참여하는 역할 부여도 필요하다. 성년으로 다시 태어나는 주인공들이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여러 문화단체와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사찰이나 선원과의 협업으로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면접대상자3은 지자체 차원의 프로젝트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성년례 준비를 위한 성찰교육과 성년수계식 프로그램의 정착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서울시나 소속 학교가 있는 구(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찰에서 장소만 빌린다고 하면 교육 취지가 좋으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훨씬 편하게 해결될 거예요.(면접대상자3)

성년례를 이행하는 것은 성년대상자가 독립된 자아를 확인하고 건강한 인성을 지닌 구성원이 됨을 의미한다. 청년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계  
식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문화단체, 학교 및 지자체가 사찰이나 선  
원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어온 성년례는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며 시의적절한 의식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성년대상자들의 인식과 공감은 뒤따라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기회도 부족해지고 있다. 또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이를 청년세대가 공감하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년세대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가치관을 지닌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청년세대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성년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준비하는 성찰교육과 성년수계식이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자료를 고찰한 후 불교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들 30명으로 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주관자는 사찰의 주지스님과 청년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물(四物)이 갖춰진 사찰에서의 ‘성찰교육’과 선원에서의 ‘성년수계식’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성찰교육에서는 성년대상자가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통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자신에게 열등감과 분노 등의 감정이 있다면 그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차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이 부모님을 힘들게 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며 편지를 써보고 영상으로 남겨 성년수계식을 하기 전 부모님에게 영상을 전달해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을 돕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성년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발원문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한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성년자들이 성찰교육에 들어간 날부터 성년수계식이 있는 날까지 3일간 총 15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부모교육의 장소는 주관하는 선원이며 프로그램 주관은 선원의 스님과 의례 및 복식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를 성년으로 인정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출가시킬 수 있도록 일깨움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성년대상자인 자녀가 의례 때 입을 배자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자녀의 신체적인 성장을 인지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심리적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부모가 성년대상자에게 옷의 의식과 술의 의식을 치러주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년수계식은 불교에서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수계식에 성인으로 거듭나는 성년례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수계를 고하는 의식인 거향찬으로 시작하여 성년대상자가 삼보에 삼배하고 부모에게도 절을 올리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주지스님이 오계의 공덕과 의미를 일러준 후 계율마다 지킬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 성년대상자는 이를 맹세하는 대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 연비를 받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옷의 의식에서 부모가 준비한 배자를 성년대상자에게 입혀주어 성년으로 변화됨을 상징하도록 하였고 부모가 주도(酒道)를 가르치는 술의 의식이 이행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 사람씩 성년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쓴 발원문을 낭독하면 수계첩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례자가 성년선언과 함께 축사를 한 다음 성년대상자들 모두가 주례자에게 절을 올리고 예식을 마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선원이 주관하여 성년대상자들의 내면적 성숙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공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들이 공동기획자로 참여하는 역할 부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여러 문화단체와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사찰이나 선원과의 협업으로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수행방법을 성년대상자들의 성찰교육으로 활용한 점, 불자로서 스스로 삼가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삶을 맹세하는 불교의 수계식을 성년식에 접목하여 성년수계식을 이행하도록 한 점, 그리고 성년대상자의 부모를 위한 교육을 프로그램에 포함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종단의 교리에 대한 해석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전체 선원과 사찰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 논문에서는 보다 많은 불교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종교의 가르침 내에는 바람직한 인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반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른 종교기관들이 주관하는 성년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문헌>

『高麗史』.

『四禮便覽』.

『三國史記』.

『小學』.

『禮記』.

『朱子語類』.

『增補四禮便覽』.

### <단행본>

계선자 외 13명, 가족과 문화, 신정, 2009.

고영복, 문화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1997.

구미래,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민족사, 2012.

김득중, 실천 가정의례, 중화서원, 2013.

김양희 외 8명, 가족과 생활문화, 양서원, 2009.

김정 편역, 국역 증보사례편람, 한국전통예절연구원, 2010.

남궁선,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운주사, 2013.

대한불교조계종 표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01.

문옥표·이충구 역주, 증보사례편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박성완, 수계와 연비, 한마음 제102호,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2018.

- 불교방송 편성제작국, 알기쉬운불교, BBS불교방송, 1992.
- 불교와 사상의학연구회,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운주사, 2011.
- 송정애 · 이양훈 · 정해은, 가족과 생활문화, 양서원, 2009.
- 우봉 이씨 대종회, 국역 사례편람, 명문당, 1992.
- 이기석 역해, 소학, 홍신문화사, 1982.
- 이기숙 외 6명, 가족과문화, 창지사, 2014.
- 이성운, 불교의례, 조계종출판사, 2018.
- 이자랑·이필원,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민족사, 2016.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조성래, 걷기명상, 알아차림, 2013.
- 주영애,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신정, 2018.
- 주영애 외 6명, 세계의 차문화,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 <학위논문>

- 강능희, 미얀마 종족의 신관 · 인간관 · 내세관에 대한 기독교 선교전략,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강옥수, 조선시대 의례서에 나타난 관 · 계례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곽미숙, 남북 차문화교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 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경미, 자녀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경미, 전통문화를 적요한 태교콘텐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경숙, 조주의 다선일여 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말희, 이덕무의 교육사상-사소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상보, 한국전통 관례의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선미, 뇌교육 기반 인성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선숙, 관례의식 및 복식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순진,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영렬, 불교 영산재의 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은희, 성년례의 문화콘텐츠문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은희, 한국 전통성년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창모, 군 장병 인성교육을 위한 불교 프로그램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한숙, 전통 성년례의 현대적 적용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혜경, 전통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망글라 칼야나푸르, 스리랑카 불교의 교육과 수행체계 고찰, 성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박경미, 유아 몸가짐예절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매체 개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박광우, 종교적 의식을 통한 자아중심주의로부터 연대적 공동체로의 전환연구 -슬라이어마허의 종교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박대순, 조선시대 관례의 사적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박양례, 조선시대 사대부의 관혼상제의 다례와 복식-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태순, 부모대상 가족중심의 개별 성년례 교육콘텐츠 개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사미타,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와 현황,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송길원,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송미화, 자의 전통과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송외순, 자기성찰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경숙,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교육콘텐츠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유지영, 유대인 성인식의 진로교육적 가치,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동필, 울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사례)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숙현, 불교수행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연구-108배, 마음챙김 명상, 천수타라니 수행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윤정, 관례의 절차·의복에 내재된 의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금주, 인간형성의 두가지 측면-단군신화와 성년식 개념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정기선, 미얀마불교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정기선, 미얀마의 불교 문화양상 연구-의례와 신행 문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 정종임, 초등학생을 위한 불교다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안-불교 차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조은숙, 명상과 침선을 적용한 태교콘텐츠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 최성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웅지, 자기성찰교육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불교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한상금, 가족여가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학회지>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성년례 참여

- 자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
- 고기정, 효 문화 교육콘텐츠의 분석과 기획,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4.
- 구미래, 일생에 대한 불교적 관념과 불교 일생의례의 특성, 비교민속학 39, 2009.
- 구미래, 불교 무형문화의 자산과 콘텐츠 가치에 대한 고찰-사하촌, 불교 일생의례, 불교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55, 2010.
- 권선향·신창호, 관계성에 근거한 불교의 인성교육적 의미-지혜와 자비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88, 2019.
- 김거부, 전통성년례,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7, 2016.
- 김성식, 한국과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성년식 연구. 남도민속연구 35, 2017
- 김시덕, 한국 일생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 39, 2009.
- 김연수, 긍정적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국내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사회복지연구 4, 2003.
- 김은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전통성년례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예다학 6, 2018.
- 김정명, 이슬람 통과례의 행태와 의미, 통일인문학 48, 2009.
- 김정신·조희진,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모형, 경원문학논문집 21, 1999.
- 김정신·조희진,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6, 2007.
- 김정호, 체계적 마음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2001.
- 김정화, 성년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960년 이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13(2), 2010.
- 김정화·최성희·이화진, 성년례의 차례의식에 관한 실태연구, 생활문화연구

- 25(2), 2011.
- 김중희, 건전가정의례준칙 변화 연구, 차문화·산업학 25, 2014.
- 김창진, 생활예절 교육으로서의 다도 예절교육의 의의, 차문화·산업학 18, 2011.
- 마성, 동남아 상좌불교의 역사와 현황, 불교평론 33, 민해사상실천선양회, 2007.
- 민순의, 불교에서의 의례의 위치와 역할-본유 중심 일생의례의 대안과 확산을 위한 제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4(3), 2010.
- 박철홍, 듀이 종교론에 함의된 종교교육의 성격: 삶에서 중요성 회복을 위한 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8, 2004.
- 신상구, 예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연구-신문왕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2, 2010.
- 손순행, 인성 효문화프로그램이 청소년가치관형성에 미치는 영향-청소년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효문화 34, 2019.
- 송위지, 상좌부 불교의 의식에 관한 소고 I -스리랑카불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4, 2001.
- 안종량, 태국의 불교와 통과의례, 僧伽 18, 2001.
- 양근석, 성년의례와 신체변공 연구. 윤리연구 37(1), 1997.
- 염숙, 전통 관례의 의미 속에서 현대 성년례의 방향 모색, 차문화·산업학 2(2), 2006.
- 오환일·김정신·이행숙·조희진, 조선족 학생들의 집단성년례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교양학회지 9, 2002.
- 이길표·최배영, 가정의례준칙과 건강가정의례준칙의 내용 비교분석, 생활문화연구 15(1), 2001.
- 이동욱, 태국의 여성 승직 배제와 가족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13(2), 2013.

-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 17, 2002.
- 이병준, 의례의 교육학적 의미에 대한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8(4), 2013.
- 이승원,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 진리논단 13, 2006.
- 이정우·김연화·김경아, 전통현대 성년례 비교 및 바람직한 성년례의 방향, 생활과학연구지 14(1), 1999.
- 이정우·김연화·김경아, 성년례 시연을 통해 본 성년례 모델 개발의 탐색적 연구-참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2000.
- 이진미, 다도가 선에 미치는 영향, 차문화·산업학 44, 2019.
- 이향만, 인성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52, 2016.
- 임순선·홍국진, 성년례와 성인되기, 청소년행동연구 17, 2012.
- 정준영, 테라와다 불교의 발생과 흐름, 한국불교학 55, 2009.
- 조준호, 출가환경으로 본 미얀마 불교조직에 대한 고찰, 선문화연구 22, 2012.
- 조창규, 유가 관례의 문화해석. 대동한문학 27, 2007.
- 조흥국, 태국의 공덕지향적 불교신앙과 민간신앙, 민속학연구 19, 2006.
- 조희선·이혜자·이윤정,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5, 2002.
- 조희진·김정신,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학회지 5, 1998.
- 주영애, 가족행사로서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010.
- 주영애·박홍석·김선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S여대 인성 캠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1, 2018.
- 주영애·최배영·김선주·박홍석, 여대생의 자존감, 자기인식,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영향, 여성연구논총 17, 2015.

- 최배영, 「사의(士儀)」 성인편(成人篇)을 토대로 한 대학의 청년기 인성교육연구, 차문화·산업학 32, 2016.
- 최영희,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부모역할. 수원대학교 논문집 15, 1997.
- 홍석기, 청소년기 시민의식의 변호와 학생주도 학습경험의 시간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 31, 2020.
- 황정현·남상준, 자기성찰의 사회과교육적 실천방안- “다시쓰기” 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대학교 초등학교연구소 학술저널, 2012.

#### <인터넷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 동대신문, [www.dgupress.com](http://www.dgupress.com)
- 법보신문, [www.beopbo.com](http://www.beopbo.com)
- 불교신문, [www.ibulgyo.com](http://www.ibulgyo.com)
- 불교평론, [www.budreview.com](http://www.budreview.com)
-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http://www.bulgyofocus.net)
- 브런치, [brunch.co.kr](http://brunch.co.kr)
- 주한스리랑카대사관, [www.slembassykorea.com](http://www.slembassykorea.com)
- 태국정부관광청, [www.visitthailand.or.kr](http://www.visitthailand.or.kr)
- 템플스테이, [www.templestay.com](http://www.templestay.com)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folkency.nfm.go.kr](http://folkency.nfm.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http://encykorea.aks.ac.kr)
- 한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http://www.hanmaum.org)
- 해인사 홈페이지, [www.haeinsa.or.kr](http://www.haeinsa.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Coming-of-Age Celebration program to be used at the Precept Ceremony

Lee, youngjoo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rts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oming-of-Age celebration program for young generations by applying the Precept Ceremony. By researching ancient documents, academic dissertations, journals, and books, this paper summarized the meaning of the Coming-of-Age celebration from the viewpoint of Buddhist temples, the procedures of the Precept Ceremony in Buddhism, and other cases in overseas temples. Besides,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s for the coming-of-age celebration program according to times in Korea,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of the implementation. And it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for improvement

and model development of the program.

Next, to form a Coming-of-Age celebration program utilizing the Precept Ceremony,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October 21, 2020, to November 1, 2020, with three Buddhist experts and three academic experts. They have been engaged in education or counseling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or more than ten years. The content of the interview was about the necessity of this program, pre-education for adult-to-be, the program format, education for parents, and activating methods for it. Before conducting the interview, the recording of it was consented by interviewees and the recorded responses were transformed as text files later. Then all data were categorized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to give meaning.

In summarizing the main research results, thirty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were selected as the adult-to-be candidates for this study. The period for the program was three days and two nights. The organizer of the program was the abbot of the temple and experts who could be mentors to young people. The program was executed sequentially, 1) "Reflection Education" at the temples where the Temple Stay program was available and 2) "Precepts Ceremony for adult-to-be" in Seon(Zen) center. At the time of Reflection Education, it let adult-to-be candidates have time to reflect upon the desirable future adulthood and write the resolution for their future life.

On the other hand, the education for parents was conducted by the Sunim (a respected form of a monk) of the Seon(Zen) center and the experts of the ritual and the costume during their children' s Reflection Education. The total period for parents' education was fifteen hours, for three days. In this education, parents made a Bae-Ja (Korean style vest) for their children to wear during the ceremony. These had parents recognize the physical growth of their children and prepare them to accept their children as an adult in mind.

Next, "the Precepts Ceremony for adult-to-be" was composed of a program that combined the Coming-of-Age celebration program with the Precepts Ceremony, which means to be born again as a true person. It started with Geo-Hyang-Chan that is a ceremony to vow to keep their precepts toward three treasures(sambo三寶) -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nga - and it let the adult-to-be candidates do deep-bow for the three treasures(sambo三寶) and their parents. Next, the head of the temple who in charge of the ceremony informed them of the merit and virtue of the five precepts and each meaning, and asked if they would follow them. Upon hearing their positive answer, the incense ceremony had proceeded. At the following ritual of clothes, the Bae-Ja (Korean style vest) prepared by parents was put on each candidate, which symbolized changes into adulthood,

and the Way of alcohol(酒道) taught by parents had proceeded. Next, each candidate read their future resolutions as an adult, and a certificate of precepts was given. After the declaration of maturity and congratulatory speech, the head Sunim let adult-to-be candidates do deep-bow to three treasures and the ceremony was ended.

To revitalize the Coming-of-Age celebration program by applying the Precept Ceremony, it is necessary for the temple or the Seon (Zen) Center to regularly conduct the program to lead the inner maturity of the adult-to-be candidat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empathize with the young generation while giving them a role to participate as co-planners. Also, socially, various cultural organizations, school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reate conditions for the program to be establish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temples and Seon(Zen) Centers.

<부록 1> 연구동의서

**연구동의서**

연구 제목 :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연구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들을 교육이나 상담하시는 불교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본 연구에 응답하시는 참여자의 정보는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진술 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함을 알려드리며 연구 참여의 중단에 관한 결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최 배 영

연구자 : 이 영 주

E-mail: youngg16@naver.com

본인은 연구 참여에 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인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면담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참여자: (인)

<부록 2> 불교계 및 학계 전문가 대상 면접지

구분	질문 내용
성년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li> <li>○ 성년례를 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li> </ul>
성년대상자 사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례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사전교육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li> <li>○ 성년대상자의 사전교육과 성년례를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li> <li>○ 사전교육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li> </ul>
성년례 프로그램의 형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까요?</li> <li>○ 성년례는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li> <li>○ 사찰이나 선원과 같이 종교적인 장소에서 성년례를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종교인의 경우라면 어떨까요?</li> <li>○ 수계식을 활용해 성년례를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li> <li>○ 성년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li> <li>○ 성년례의 주례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li> <li>○ 성년대상자의 복식으로는 무엇을 입는 것이 좋을까요?</li> <li>○ 성년례의 의식 중 초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례의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li> <li>○ 성년례에서 범명을 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종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li> <li>○ 성년례에 부모님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li> </ul>
부모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li> <li>○ 부모 대상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li> <li>○ 부모 대상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li> </ul>
성년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계식을 활용한 성년례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li> </ul>

활성화 방안	노력이 필요할까요?
--------	------------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input type="radio"/> 성별 <input type="radio"/> 연령 <input type="radio"/> 직업 <input type="radio"/> 종교 <input type="radio"/> 학력
------------------	--